

자율주행차 센서 전쟁 개막



CIS

저렴·보편적 vs 정확·광범위

라이다



**삼성전자** 전장용 CIS 개발 박차  
전장용 반도체 '엑시노트 오토' 론칭

**SKT** 전장기업 파이오니아 협업  
CES서 광자 라이다 시제품 공개

자율주행차 센서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CMO S 이미지 센서와 라이다간 경쟁도 기대를 모은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는 최근 CES 2020에 콘셉트카 '비전 S'를 공개하고 사실상 자동차 전장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비전 S는 소니의 센싱 기술을 총망라한 모델이다. 이른바 '세이프티 코쿤'으로, 360도 주변을 감지해 운전자와 탑승자에 안전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CMOS 이미지센서(CIS)다. 소니가 전세계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분야다. 자율주행차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며 시장규모가 2030년 150조 원 이상으로 5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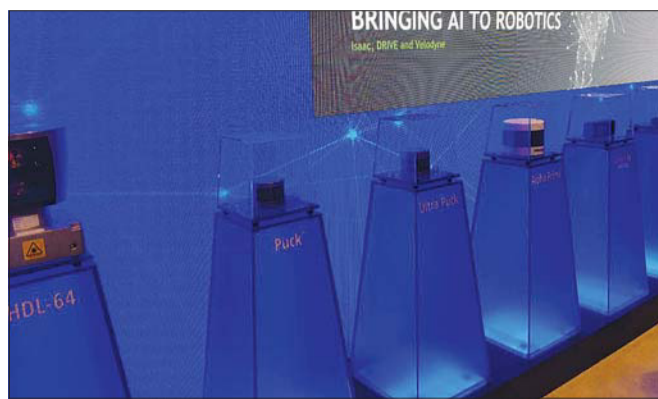
앞서 삼성전자도 전장용 CIS 개발에



소니 비전 S 콘셉트. CIS와 라이다 등 전장 센서 시장 진출 포부를 담았다. /소니

박차를 가해왔다.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 분야를 미래 주력 사업으로 지목한 후, 전장용 반도체 브랜드 '엑시노트 오토'를 론칭하고 센서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 노력으로 최근 소니에 앞서 세계 최초로 화소 크기 0.7마이크로미터, 1억화소를 돌파하기도 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 대한 소니와 삼성의 양사 점유율은 각각 50%와 17% 수준이다. 최근 소니가 다소 주춤했던 상황을 전장 사업에 진출하면서 만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소니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는 모빌리티에 대한 높은 관심에 힘입어 자율주행 위한 '라이다' 제품 다수가 첫선을 보였다. /연합뉴스

단, CIS가 미래 모빌리티 센서 시장을 독점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자율주행차에 보편적으로 쓰일 수는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난반사 등 오류 가능성이 높아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미국 테슬라가 자율주행시 오작동을 일으키는 이유도 CIS를 활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안은 '라이다'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아 주변 공간을 측정하는 센서로, 가격이 비싼 대신 CIS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다.

라이다 시장 강자는 단연 미국 벨로

다인이다. 전세계 라이다 시장 1위인 벨로다인은 CES 2020에서 센서 감지 범위를 200m에서 245m로 크게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춘 제품을 선보였다. 현대모비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급하기로 협의하는 등 주도권도 공고히 했다.

이스라엘도 라이다 부문에서는 강자로 꼽힌다. 현대차가 투자한 스타트업 옵시스를 비롯해 여러 업체들이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국 드론 업체 DJI도 빠르게 추격하는 형국, 소니도 비전 S에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선보이며 전장

센서 부문을 전방위적으로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국내에서도 만도 등 일부 기업이 라이다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출시되지 않았거나 성능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개발 중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그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는 못한 상태다.

SK텔레콤이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다. CES 2020에 단일 광자 라이다 시제품을 공개하면서다. 전장기업 파이오니아 스마트 센싱 이노베이션즈(PSI)와 협업한 결과로, 2021년 상용화를 예상했다. 세계 최초로 1550nm 파장 단일 광자 라이다 송수신 기술과 2D MEMS 미러 스캐닝 기술을 결합해 기존 라이다 한계까지도 극복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CIS와 라이다는 각각 장단점이 있어서 자율주행차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복합돼 사용될 것"이라며 "라이다가 국내에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에 한정돼 있어 가격이 비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산 제품도 상용화된다면 자율주행차 가격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AI기술로 선박운전 최적화... 연료비 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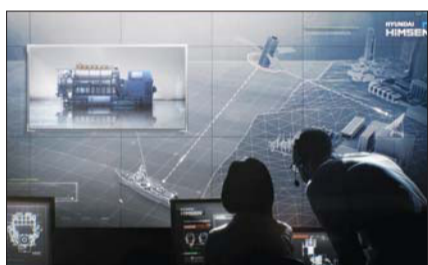
**현대중** 스마트선박 고도화 추진  
'힘센엔진'에 정보통신기술 접목

현대중공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박에 적용, 스마트선박 고도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모델 엔진인 '힘센엔진(HiMSEN)'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기존보다 10% 이상 연료비 절감 효과를 내는 선박운전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핵심기술은 운항 중인 선박 내 기자재의 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최적의 경제운전을 지원하는 지능형 선박기자재관리솔루션(HiEMS)과 인공지능이다.

이 시스템은 지능형 선박기자재관리솔루션을 통해 축적된 선박 내 발전 엔진의 빅데이터 및 실시간 정보를 인공지능이 종합, 분석한 후 최적의 연비를



디지털관제센터에서 힘센엔진 운전을 모니터링하는 모습. /현대중공업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운항 중인 선박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지능형 선박기자재관리솔루션을 개발한 이후 지금까지 45척 분(엔진 170여기)을 수주, 이 중 10척 분(엔진 40여기)을 인도한 바 있다.

또 현대중공업은 현대글로벌서비스에 위치한 디지털관제센터(부산해운대구)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비롯해 부품·정비와 연계된 예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스마트 엔진사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공동주택서도 든든... 현관 실시간 감지·알람

**SKT** '캡스홈 도어가드' 출시  
비상버튼·스마트폰 앱 보안 구축

SK텔레콤은 ADT캡스가 출시한 홈보안 서비스 '캡스홈 도어가드'를 전국 대리점에서 13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ADT캡스 합병 후 2018년 11월 이동통신과 보안 결합상품 T&캡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번에 출시한 캡스홈 도어가드는 아파트, 연립, 빌라,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보안상품이다.

현관문 앞에 풀HD 카메라와 움직임 감지 센서, 출입 감지 센서를 탑재한 영상 장비 및 SOS 비상버튼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현관 앞에서 인기척이 감지될 경우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고 가



모델들이 '캡스홈 도어가드' 출시 소식을 알리고 있다. /SK텔레콤

입자 스마트폰에 알람을 보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택배기사 등 방문자가 확인되면 가입자가 집 외부에 있어도 캡스홈 도어가드에 설치된 양방향 대화기능을 통해 방문자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경비 중 출입자 발생 등 이상신호가 감지되면 최단 거리에 있는 ADT캡스

보안요원이 신속하게 출동한다. 고객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접 SOS 비상버튼이나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현관문 입퇴실 확인이 가능해 가족들의 안전한 외출 및 귀가도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렉서스, 신진 공예작가 발굴 나서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 개최

렉서스코리아가 국내 공예작가를 새로 발굴했다.

렉서스코리아는 10일 서울 잠실컨벤트 투에서 '렉서스 크리에이티브 마스터즈 어워드'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어워드는 2017년부터 이어져 왔

며, 올해에는 '감각'을 주제로 279개 작품을 응모 받았다. 이 중 권중모, 김민욱, 박정근, 이동주 작가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당선작은 추후 전문 심사위원단 멘토링을 거쳐 '렉서스 에디션'으로 새로 제작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1일 열리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에 공개한다.

/김재용 기자

모바일팩스, 이제 아이폰에서도 간편하게

**SK텔링크** '모바일팩스' 앱 출시

SK텔링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팩스 서비스를 아이폰(iOS) 버전으로 출시, 모든 운영체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SK텔링크 모바일팩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팩스를 보내고 가입 시 부여받은 번호로 팩스를 받을 수

있는 생활 편의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이다.

가입비나 월정액 요금 없이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11월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첫 선을 보인 이래 1월 기준, 구글플레이 누적 앱 다운로드 700만건 이상, 연간 이용량 1억2000장이 넘었다.

이번에 iOS를 지원하는 'SK텔링크 모바일팩스'가 정식 출시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아이폰 이용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앱스토어를 통해 'SK텔링크 모바일팩스'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앨범, 문서 첨부 기능을 통해 필요한 사진이나 문서를 손쉽게 팩스로 내보낼 수 있으며, 설치시 부여 받은 0504안심번호를 이용해 무료로 팩스를 수신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강북, 대단지 소형위주 매매 오름세 강남 급매 속 성북·성동 전세 꿈틀

12·16대책 한 달, 서울 집값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 0.07% 상승  
서울 상승폭 0.08→0.07%로 줄어  
매수우위지수도 4주가 연속 급감  
마·용·강·성 거래량 한자리수 기록

작년 12·16 부동산대책 이후 전반적인 서울 집값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강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 집값은 신축 소형 아파트 위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13일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0.07% 상승, 전세가격은 0.12% 상승했으며 서울은 상승폭이 0.08%에서 0.07%로 줄었다. 서울의 경우 소형평형이나 외곽 등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던 중저가 아파트는 일부 상

승했으나 상승세를 주도하던 강남 등 주요 지역과 고가아파트는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 대책 영향과 상승피로감으로 대체로 보합세를 보이거나 급매물 출현으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북지역은 ▲마포구(0.09%) 성산·염리동 ▲강북(0.09%)·성북구(0.08%) 뉴타운 및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 ▲성동구(0.07%)는 금호·행당·옥수동 신축 및 대단지 소형 위주로 올랐다.

전세는 ▲성북구(0.13%) 길음·하월곡동 대단지 ▲성동구(0.12%) 상·하왕십리동 신축 및 금호동2가 역세권 위주 ▲마포구(0.10%) 공덕·아현동 신축 ▲서대문구(0.10%) 중림·신당동 소형 평형 ▲광진구(0.10%)는 교육환경 양호한 광장동 위주로 상승했다.

시세는 마포구가 3.3㎡당 매매가 3058만원, 전세 1650만원이다. ▲용산

구(매매 3721만원, 전세 1669만원) ▲서대문구(매매 2215만원, 전세 1302만원) ▲성동구(매매 3047만원, 전세 1655만원) ▲성북구(매매 1955만원, 전세 1219만원) ▲강북구(매매 1569만원, 전세 995만원) 등도 이 같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가격상승세와는 별개로 거래량은 줄고 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105.6)보다 8.1포인트 하락해 97.5를 기록했다.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셋째 주 91.9를 기록한 후 16주 만이다.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을 넘을 경우 부동산 매수자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다는 의미고, 100이하로 떨어지면 그 반대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마



12·16 부동산대책에도 서울 강북일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포·용산·강북·성동구는 이번 달 한 자리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 마포구는 지난해 12월 148건, 이번 달 4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기록 중이다. 용산의 지난달 거래량은 68건, 이번 달은 5건이며 강북구는 지난달 98건 거래 됐지만 이번 달에는 5건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196건이 거래된 반면 이번 달에는 4건에 불과하다.

한편 서울 아파트 시장은 12·16 대책 직전 12월 둘째 주 과열이 극에 달해 매수우위지수가 128.6까지 치솟았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후 매수세가 꺾이면서 매수우위지수는 4주간 연속 급감했다. 특히 강남(11개구)보다 강북(14개구) 지역의 낙폭이 더 컸다. 지난달 초

133.8까지 매수우위지수가 상승했던 강북은 3주간 가파르게 떨어져 지난주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지역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강남은 12월 초 124.6 고점을 찍었다가 현재 110.0을 기록 중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강북 일부 지역 재개발 신축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주변 시세에 맞춰 제자리를 찾는 중이다”라며 “거래 감소 현상은 9억원 미만 아파트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6개월, 장기적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대우건설 ‘푸르지오’, 올 3.4만 가구 공급

민간 건설사 중 최대물량

대우건설은 올해 푸르지오 아파트 2만8638가구, 주상복합 1732가구, 오피스텔 3630실 등 총 3만4000가구를 전국에 공급한다. 민간 건설사 가운데 최대 물량이다.

13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만4016가구, 지방에 998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물량이 받쳐주는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지난해 6334가구에서 올해 1만6397가구로 대폭 증가했으며, 인천 루원시티와 하남 감일지구 등 자체사업으로 2153가구, 인천 한들구역과 세운지구 등 민간 도급사업을 통해 1만5450가구를 분양한다. 서울에서는 둔촌주공 재건축, 대치1지구 재건축, 세운구역 등 4636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수원 대교역 푸르지오 SK뷰를 시작으로 하남 감일지구, 인천 한들구역 등 서울 접근성이 좋은 신도시 택지지구 등 비롯해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투시도 /대우건설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성남 신흥2구역, 광명 14R구역, 안산 원곡연립1구역 등에서 분양한다.

지방에서는 부산 남구 대연4구역 재개발, 대연4구역 재건축, 대구 수성구 중동, 파동강촌2지구 재개발 사업과 같이 지역 내 가장 선호되는 지역에서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주택공급실적 1위를 달성했다. 올해 역시 주택공급실적 1위 달성이 유력시되는 상황이며, 2020 신평면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외인, 5개월 만에 국내주식 ‘사자’… 채권은 순회수세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5개월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반면 채권 시장에서는 순회수세를 유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인 상장주식 8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500억원, 4600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유럽에서 3조원 규모로 순매수에 나섰다. 미국(-2조9000억원)과 아시아(-2000억원), 중동(-300억원)에서는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2000억원) ▲프랑스(9000억원) ▲케이맨제도(5000억원) 등이 순매수했다. 반면 ▲미국(-2조9000억원) ▲싱가포르(-4000억원) ▲일본(-3000억원) 등은 순매도

〈외국인의 상장증권 순투자 및 보유현황〉

(단위:십억원, 결제기준)

구분	2018년 (1~12월)			2019년 (1~12월)			보유잔고
	상반기	하반기		11월	12월		
주식	△6,678	△3,900	△2,778	1,637	△2,839	810	593,191
채권	15,625	12,021	3,604	9,219	△1,776	△2,491	123,651
합계	8,947	8,121	826	10,856	△4,615	△1,681	716,842

\*상장주식은 장내거래 기준, 상장채권은 장내·장외거래 기준

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주식 보유규모는 593조2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3%다.

지역별로는 미국이 251조7000억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의 42.4%를 차지했고 ▲유럽 171조5000억원(28.9%) ▲아시아 75조7000억원(12.8%) ▲중동 20조 6000억원(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4조5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6조5410

억원의 영향으로 총 2조4910억원을 순회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순회수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유럽(-7000억원) ▲중동(-4000억원) ▲아시아(-2000억원) ▲미주(-1000억원)에서 모두 순회수했다. 종류별로는 통안채(-1조5000억원)와 국채(-1조원),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4조9000억원)에서 순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포스코건설 11년 만에 더샵 브랜드 로고 교체

포스코건설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 ‘더샵’의 로고를 11년 만에 교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새로운 10년을 맞아 2020년의 주거 지향 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포스코건설의 의지가 반영됐다.

더샵의 심벌(#)은 기존보다 강인함과 견고함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대·소문자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로고도 대문자로 통일해 가독성을 높였다.

색상은 기존 블루바이올렛을 대신해 ‘프러시안 블루’로 결정했다. 프러시안 블루는 철의 화학반응에서 볼 수 있는



더샵 브랜드 적용 사례. /포스코건설

색상으로, 그룹의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다.

새로운 로고는 올해 포스코건설의 신규 분양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 화장품용기 전문 연우, 생활용품으로 영토 확장

TS트릴리온과 부자재 공급 계약  
글로벌 기업 용기시장 확대 기대

국내 1위 화장품 용기 전문기업 ‘연우’가 생활용품 용기로 사업 부문을 확장한다. 그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영향으로 화장품 업체의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진을 겪었던 연우가 수익 회복과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우는 국내 탈모샴푸 시장 1위 기업인 T S트릴리온과 샴푸 및 트리트먼트 제품의 펌프 부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화장품 용기만 취급하던 연우가 생활용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생활용품

로 레퍼런스(평판)를 쌓은 후 국내 대형사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의 생활용품 용기시장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됐다.

연우 관계자는 “그동안 생활용품을 전혀 다루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TS트릴리온과 계약은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고객사인 P&G,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기업의 생활용품 부문까지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번 TS트릴리온과 계약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연우의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연우가 개발한 펌프는 내용물의 변질을 차단할 수 있는 스프링 구조와 물 유입 방지 기술을 갖췄다. 펌프 후 남은 내용물이 다시 내부로 유입되는 것도 차별화된 기술이다.

한편 지난해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한 연우는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화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2019년 연우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00.9% 증가한 247억원, 영업이익률은 6.0%포인트 증가한 8.3% 수준으로 전망했다. 올해 영업이익은 이보다 16.7% 늘어난 288억원이 될 것으로 봤다.

손호주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우는 프리미엄 화장품 용기 생산 전문 업체로 유수의 글로벌 업체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내년 국내 대형 업체들은 프리미엄 화장품 사업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외 업체의 수주 물량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내년도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미 기자 sonumji301@

# “기존 틀 깨자” 최고상품·채널에 디지털금융 입힌다

## 보험, 飛上 2020 전략

###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차남규 CEO 물러나며 ‘세대교체’ 라이프파크·와이어리스 등 구축 ‘디지털 금융’으로 수익 개선 전략 신뢰 통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 등 한화생명 화합적 노사관계 선언



한화생명은 2020년 새로운 슬로건으로 ‘메이크 뉴 프레임스, 고우 투 더 넘버원 (Make New Frames, Go to the No.1)’이라고 정했다.

지속되는 초저금리, 신제도 도입, 정부 규제 등의 어려운 보험환경 속에서 최고 수준의 상품과 판매채널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고객에게 믿음과 행복을 주는 1등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 ◆ 위기를 기회로

한화생명은 지난해 초저금리와 저성장, 건전성 규제 강화, 새 국제보험회계 기준(IFRS17) 도입 등 제도 변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등 정부 규제로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이 모두 악화했다.

한화생명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543억원으로 직전년도(3854억원) 대비 60% 감소했다. 1990년대 판매한 고금리 확정형 상품의 비중이 높아 저금리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차역마진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LAT 강화에 대한 자본확충 우려도 있다. 한화생명의 2018년 말 LAT 잉여는 1조2000억원으로 2017년 말 7조1000억원에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생명은 차남규

부회장·여승주 사장의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여승주 사장 대표이사 단독 체제로 변경했다. 지난해 11월 보험업계 대표 장수 CEO였던 차 부회장이 물러난 것이다. 세대교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단독 체제로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

여 사장은 2016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2018년 10월 한화생명 사업총괄로 부임해 지난해 3월 한화생명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여 사장에게는 IFRS17, 신지급여력 제도(K-ICS)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해 자본을 확충하고 상품 포트폴리오와 판매 채널을 재편하는 한편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을 모두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 ◆ 디지털 금융

한화생명은 수익성 개선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금융’이 있다.

여 사장은 지난해 초 위임 후 공식 일정으로 보아오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의 보험산업과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금융가치 창출, 금융산업 투자 전략에 대해 고민했다.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화생명은 ‘한화생명 라이프 파크(Life Park)’를 개원하고 디지털 전문 금융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스마트연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 교육과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한화생명은 와이어리스(Wireless) 환경을 만들었다. 강의실뿐만 아니라 숙소동, 휴게실에서도 와이파이를 통한 모바일 사용이 가능하다. 자산관리 플랫폼 벅크셀러드,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코를 통한 모바일 상품 판매도 확대했다. 특히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위해 다이렉트 보험 채널인 ‘온슈어(Onsure)’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

또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Record)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 ‘헬로(HELLO)’를 출시하기도 했다. 이 앱은 사용자의 건강검진 정보, 일상생활에서의 건강정보(활동량, 영양, 수면 등)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한다.

여 사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신입사원 환영만찬에서 “기존의 틀을 깨고 변화를 주도하는 새 시대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혁신적 사고를 갖춘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노사 협력 강화

한화생명 노사는 저금리, 제도변경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Make new Frames! Go to the No.1!’ 슬로건 아래 2020년 도약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마음을 모았다.

여 사장과 김태갑 노동조합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노사화합

선포식을 갖고, 노사화합 공동선언을 통해 한화생명의 화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2020년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신뢰를 통한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초일류 보험사를 향한 지속적 혁신 추진 ▲각자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 의식 기반의 기업문화 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 사장은 “조합의 회사에 대한 신뢰와 존중 덕분에 선포식이 이뤄졌다”며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는 경영으로 조합과 함께 회사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한화생명 63빌딩 전경. /한화생명

## 주식결제대금 284.5조... 15.9% 감소

예탁원, 장외 주식결제대금 17% ↓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결제대금 총액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9% 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장내 주식시장결제대금은 119조4000억원으로 전년(138조8000억원) 대비 14.0% 감소했고, 장외 주식기관결제대금은 165조1000억원으로 전년(199조6000억원) 대비 17.3%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주식결제대금 추이를 보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2015년 287조7000억원보다 적고, 2016년 269조9000억원보다 조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제대금 차감효과는 377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대

금차감이란 회원별로 총매도금액(수령포지션)에서 총매수금액(납부 포지션)을 차감해 계산된 포지션(수령 또는 납부)의 금액만 최종적인 결제대금으로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주식결제대금은 주식거래대금(4059조4000억원)의 7.0%에 해당, 차감률은 93.0%에 달했다.

시장별로 장내 주식시장결제의 차감효과는 2528조5000억원(차감률 95.5%), 장외 주식기관결제의 차감효과는 1246조4000억원(차감률 88.3%)으로 나타났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결제서비스를 통한 필요 결제자금의 최소화는 참가자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해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금감원, 2020 외부감사제도 순회설명회

제도관련 현상상담 등 병행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기업,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는 감사인 선임기회를 앞두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과 감사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현상상담을 병행하는 등 원활한 감사인 선임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한다.

30일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1월31일) ▲대구(2월4일) ▲울산(2월5일) 등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설명자료는 금감원 회계포탈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 “10.7조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금융위, 작년 보험금 2.8조 주인찾아 ‘숨은 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 추진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이 2조826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10조원 가량의 보험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SMS, 알람톡, 전자등기 등을 이용해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하고, 폐업 도산이 신고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보험 정보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2020년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객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은 휴면보험금과 미수령 연금·만기보험금·분할보험금을 보유한 고객에게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숨은보험금 통합소

《2018년12월~2019년11월 말 중,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 (단위: 억원)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합계
생명보험회사	20,083	5,597	1,018	26,698
손해보험회사	153	805	611	1,569
합계	20,236	6,402	1,629	28,267

/자료=금융위원회

회사서비스 ‘내보험 찾아줌’에서 보험소비자가 찾지 못한 금액은 약 2조8267억원(126만7000건)이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약 2조6698억원, 손해보험사가 1569억원을 지급했다.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현재 수령하지 않은 보험금은 중도보험금 7조8600억원, 만기보험금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으로 총 10조734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우선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계약자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오는 14일부터 SMS, 알람톡, 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한다.

최신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이 미정구된 계약은 오는 2월부터 우편을 통해 최신주소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다만, 지난해 11월부 올해 1월 중 보험사가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을 안내했다면, 중복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않을 경우 보험회사 콜센터 등을 통해 1월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 신청하면 된다.

/나유리 기자 yu115@

## 금리인하 영향... 채권발행 9.1% 증가

지난해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국채와 회사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가 13일 발표한 ‘2019년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발행 규모는 68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1%(57조1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채는 전년보다 45%(51조6000억원) 증가한 166조1000억원, 통안

채는 11.1%(17조8000억원) 감소한 142조1000억원이 발행됐다.

금융채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안심전환대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등이 은행채 발행 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전년보다 0.7%(1조3000억원) 소폭 증가한 192조4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손영지 기자

# 경량다운은 지센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을 2013년 9월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HOUSE OF SHARING  
일본군위안부쉼터 - 국제평화인권센터

지센 전국 매장 전화번호 \* (직)직영점 (L)롯데마트 (H)홈플러스 (N)뉴코아 (NC)엔씨백화점 (LM)롯데몰

위비스 온라인몰 [www.wivissmall.com](http://www.wivissmall.com) 지센 공식홈페이지 [www.zishen.com](http://www.zishen.com)

<b>경기도</b> 경기광주상설 031-731-1412 성남태평 031-623-5999 고양터미널(L) 031-936-3609 구리 031-567-1021 김포(LM) 02-6116-5507 김포장기 031-985-7100 동두천중앙 031-858-6848 동수원(N) 031-222-6446 문산 031-233-3783 문산 031-952-0310 병점 031-222-6446 봉담상설 070-8867-5989 부천원종(직) 031-411-7354 부천남부 032-330-8123 부천상동(H) 031-405-5201 부천중동(직) 031-413-3252 안성 070-8874-2162 산본(LM) 031-8033-1267 삼패상설 031-521-3845 안성 031-683-9550	<b>충청도</b> 양평 031-772-1719 역곡 032-342-7063 오산 031-541-4601 수원남문 031-243-9481 수원조원 031-243-6105 수원탑동 031-8001-7270 수원터미널(NC) 031-8065-3822 시화 031-498-3933 시흥신천 031-311-3058 시흥신천상설 070-8867-5989 안산(N) 031-411-7354 안산신부 032-330-8123 안산성포(L) 031-405-5201 안산성포(H) 031-413-3252 안양중앙(직) 031-441-4840 안양평촌(N) 031-8033-1267 안중 031-380-1376 안중 031-683-9550	<b>서울특별시</b> 문정 02-401-6211 사당 02-444-3274 종로상설 02-2272-3945 개봉 02-2668-8577 광명(직) 02-2060-3648 광명(직) 02-2611-3048 의왕(L) 031-421-5273 의정부(H) 031-851-9351 의정부중앙 031-840-5454 이천부발상설 031-634-1081 인덕원 031-634-1081 남영(직) 031-423-4108 일산덕이 031-266-8894 지스북수원(H) 031-794-0876 화성남양 031-356-2294 화정(L) 031-970-7708 의정부 02-409-4365 의정부 02-971-5339	<b>인천광역시</b> 문정 02-444-3274 사당 02-444-3274 종로상설 02-2272-3945 개봉 02-2668-8577 광명(직) 02-2060-3648 광명(직) 02-2611-3048 의왕(L) 031-421-5273 의정부(H) 031-851-9351 의정부중앙 031-840-5454 이천부발상설 031-634-1081 인덕원 031-634-1081 남영(직) 031-423-4108 일산덕이 031-266-8894 지스북수원(H) 031-794-0876 화성남양 031-356-2294 화정(L) 031-970-7708 의정부 02-409-4365 의정부 02-971-5339	<b>대전광역시</b> 문정 02-401-6211 사당 02-444-3274 종로상설 02-2272-3945 개봉 02-2668-8577 광명(직) 02-2060-3648 광명(직) 02-2611-3048 의왕(L) 031-421-5273 의정부(H) 031-851-9351 의정부중앙 031-840-5454 이천부발상설 031-634-1081 인덕원 031-634-1081 남영(직) 031-423-4108 일산덕이 031-266-8894 지스북수원(H) 031-794-0876 화성남양 031-356-2294 화정(L) 031-970-7708 의정부 02-409-4365 의정부 02-971-5339	<b>전라남도</b> 자양(직) 042-544-5455 종로상설 042-544-5455 정라(L) 042-822-5926 신탄진 042-934-9523 간석(H) 043-288-5028 영광 041-352-4040 완도 041-554-1310 익산영동 063-833-4446 익산중앙 063-856-8810 익산팔봉 063-834-7550 전주(직) 063-231-3355 전주동산 063-241-0632 전주서신(직) 063-272-6028 전주송천 063-272-6255 전주인후 063-246-8284 전주평화 063-222-0017 정읍 063-537-2200	<b>전라북도</b> 전안모다아울렛 061-287-0580 부안 063-584-3675 서천주 063-225-6565 여수여천 061-683-7732 영광 061-352-4040 완도 041-554-1310 익산영동 063-833-4446 익산중앙 063-856-8810 익산팔봉 063-834-7550 전주(직) 063-231-3355 전주동산 063-241-0632 전주서신(직) 063-272-6028 전주송천 063-272-6255 전주인후 063-246-8284 전주평화 063-222-0017 정읍 063-537-2200	<b>경상도</b> 경산(직) 053-812-9200 경주 054-457-5294 구미봉곡 054-456-7772 구미봉곡상설 054-455-9922 구미신평(L) 054-463-6190 구미인동 054-473-2277 북삼 054-975-1097 상주중앙 055-231-5507 밀양 054-857-7098 영주 054-632-9282	<b>경상북도</b> 영천 054-333-1771 포항월링 054-221-9939 포항장성 054-249-9987 포항죽도 054-252-4266 포항학산 054-253-8254 포항중해 054-262-4945 하양 053-857-9799 거제고현 055-636-3793 거제옥포 055-687-8688 거창중앙 055-944-6989 김해(H) 055-320-8250 김해외동 055-312-4455 김해어방 055-312-7464 김해중앙 055-332-3605 남해점 055-864-6665 마산내서 055-231-5507 밀양 054-857-7098 영주 054-632-9282	<b>대구광역시</b> 대구신암 053-243-8808 대구엑스코(NC) 053-662-9203 대구용산(H) 053-552-1236 창녕 053-522-5228 창원대동 070-4107-8500 창원중앙 053-254-8883 방촌 053-983-1365 봉덕 053-473-9688 산격 053-954-6469 화원 053-634-4876	<b>부산광역시</b> 부산대형 051-909-9588 부산두실 051-517-0025 부산사상(직) 051-311-9106 부산서동 051-527-0838 부산서면 051-803-5770 부산영도 051-415-5507 부산용호 051-628-8644 부산하단 051-208-7789 신모라 051-325-4675 연산(직) 051-851-8181 장림 051-266-8873 지스가야(H) 051-892-7111 해운대(NC) 051-709-5787 화명(직) 051-338-0782 부산담감 051-892-1244 부산대면 051-623-0707	<b>울산광역시</b> 울산신정 052-269-4455 울산중구(H) 052-298-2366 서귀포 064-732-8662 제주연동 064-746-2120 제주지하 064-727-0034
---	--	---	---	---	--	---	--	---	---	--	---

# 美·이란, 고래 싸움에 날개 흔들리는 항공업

이란,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인정  
“안전 제일” 국내 항공권 취소 잇따라

이란이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대한 격추 사실을 인정하며 국내 항공업계에도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란 군 당국은 지난 11일 최근 우크라이나 여객기 추락 사건은 이를 적기로 오인한 ‘사람의 실수’로 발생한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기된 ‘미사일 격추설’을 부인해 왔던 이란 군 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락 당시 해당 여객기는 이란 혁명수비대 군사기지 인근 상공을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항공업계에도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자 했던 내국인들 사이에 불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서는 이미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으로 항공권 취소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여행 포털 사이트 내 카페 회원은 “아부다비를 거쳐 두바이로 들어가는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다.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다른 회원은 “저도 다음주에 두바이 가는데 지금 취소하면 위약금이 너무 많다. 외교부에서 여행사에 조치를 내려줘야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더라”며 “몇 달을 계획한 여행이지만 안전이 우선이다”고 여행 취소 의사를 전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동 지역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해 ▲두바이(아랍에미리트) ▲텔아비브(이스라엘)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향하는 중동 노선 3개에 취항 중이다. 아부다비 노선은 에티오피아항공의 항공기로 일부 또는 전부 운항돼 대한항공의 자사 여객기가 직접 아부다비 상공까지 가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두바이와 텔아비브 노선은 직접



지난 8일 추락한 우크라이나 여객기 잔해 현장에 이란인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해당 지역까지 노선을 운항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단은 그쪽에 영향받는 노선은 없다. 그래서 두바이나 텔아비브 노선도 운항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상황을 쪽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관련 노선에 대해) 취소 문의는 좀 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실제 취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유류할증료도 아직 조정은 없는 데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적 항공사뿐 아니라 국내에 취항하는 중동계 항공사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중동계 항공사로는 에미레이트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카타르항공이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두바이행 노선, 에티오피아항공은 아부다비행 노선, 카타르항공은 도하행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또한 이미 독일 국적의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말레이시아항공 등 각국의 항공사들도 이란 및 이라크 상공을 피해 우회 운항하기에 나섰다.

박원근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전면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 이란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온다”며 “하나는 이란도 미국이 하는 것에 따라서 비례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의미는 미국이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도 더 이상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롯데글로벌로지스 설 대비 비상근무체제 전환

비상상황실 운영·택배차량 추가 투입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3일부터 설 특수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설 특수기 기간 중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약 3주간을 설 특수기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한다. 회사측은 설 택배물량이 이날부터 크게 증가해 28일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전국 1000여 집배점에 1500여대의 택배차량을 추가 투입해 긴급 배송지원을 한다. 물류센터 분류인력과 콜센터 상담원도 각각 50%



롯데 택배차량

증원하고 택배기사 등 현장 인력들에게 물량이 많은 사흘 동안 간식을 추가 제공해 현장을 격려하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안대준 택배사업 본부장은 “철저한 준비로 설 특수기 물량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설 선물 택배는 20일 전에 보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승호 기자

# “빅데이터 기반 컨설팅서비스 확대 마이데이터 첫 성공사례 만든다”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 사장  
기자간담회

‘비자넷’으로 파트너사 마케팅 지원  
핀테크 기업과 협업, 신상품 출시  
비자 이노베이션 스테이션 구축

“네트워크를 위한 네트워크 회사가 되겠다.”

패트릭 윤 비자코리아(Visa Korea)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간(B2B)거래 컨설팅 서비스를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비자는 디지털 금융 가속화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통과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고객사 해법 찾아주는 비자 ‘빅데이터 컨설팅’

윤 사장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활성화된 국내 오픈뱅킹 시스템과 더불어 마이데이터사업까지 확산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의 마이데이터 관련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자는 1초당 6만5000건 이상의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자넷(VisaNet)에 축적된 정보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 가공하는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세계 각지에 위치한 주요 파트너사의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활동을 지원한다.

단순 데이터 분석 솔루션 제공을 넘어, 비자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트너사와 함께 맞춤형 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해 디지털 시대에서의 상생을 목표로 한다는 게 비자 측의 설명이다.



패트릭 윤 비자 코리아 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0년 주력 사업 및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비자코리아

이를 위해 비자는 약 500명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컨설턴트로 구성된 ‘비자 컨설팅 앤 애널리틱스(Visa Consulting and Analytics, VCA)팀을 별도로 운영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국내 전문인력도 작년 부터 꾸준히 충원해 왔다. 지난해 2017년 대비 인원의 30%를 추가로 채용했으며, 올해 채용계획도 이와 비슷할 전망이다.

◆핀테크 협업 강화로 신(新) 경쟁력 확보

윤 사장은 취임 이후 국내 핀테크 업체들과의 협업 및 지원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했다.

올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한 신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나카드와 함께 선보였던 ‘하나 원큐(1Q)페이’와 같이,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해외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론칭할 예정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팅 협력도 함께 진행한다.

윤 사장은 “해외 결제 기능에 있어 비자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

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주요 파트너사들과 함께 P2P 해외 송금 서비스인 비자다이렉트(Visa Direct)를 출시한다. 지난해 비자는 국제 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스포트(Earthport)를 인수해 차세대 송금 플랫폼 관리에 나선 바 있다.

고객은 비자 다이렉트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 송금은 물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간 송금 등 다양한 형태의 송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업을 위해 비자 이노베이션 스테이션(Visa Innovation Station)도 구축한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개국 5주년, 순이익 10억 목표... ‘흑자 원년’ 만든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기자간담회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추진  
방송·상품 차별화로 목표 달성

올해로 개국 5주년을 맞은 공영쇼핑이 ‘2020년 흑자 원년’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트랜스포메이션’에 본격 돌입했다.

‘진실(THUTH)’을 통해 상품이 아닌 경험을 팔고, 좋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를 극대화해 나가기로 하면서다.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경영슬로건은 ‘흑자 원년의 해로 간다’는 의미에서 ‘GO INTO THE BLACK’으로 정했다”면서 “20번째로 ‘뒷골목 채널’인 공영쇼핑이 방송 및 상품 차별화 등을 통해 올해 취급액 8300억원, 순이익 10억원의 목표를 만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사 현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공영쇼핑

다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취급액은 TV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제품 총액을 말한다. 판매액으로도 불리며 홈쇼핑의 외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고객이 제품을 주문했다 취소하면 취급액에서도 제외한다. 다만 수수료 총액인 홈쇼핑의 매출과는 다른 개념이다.

2015년 방송을 시작한 공영쇼핑은 지난해 취급액 7156억원, 당기순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첫 해 -19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적자만 총 -420억원에 달한다. 800억원의 자본금 가운데 절반 이상을 까먹었다.

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IPTV사업자들이 공영쇼핑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지난해 송출수수료가 동결돼 고정비를 줄일 수 있게 됐고, ‘메이드 인 코리아’만 허용했던 판매정책도 OEM을 일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급액이 지난해 7월부터 상승곡선을 탔고, 8월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단점으로 잦은 방송사고가 발생한 이후 설비 이중화 및 안정화도 끝내는 등 내부 정비도 끝냈다.

이에 따라 공영쇼핑은 지난해 8월 5억원, 9월 1억원, 10월 8억원, 11월 15억원, 12월 20억원 등으로 하반기부터 흑자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지를 뚫고 의장직을 탈환해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거구·18세 투표권·위성정당 총선 앞둔 선관위의 '3대 숙제'

범여권서 수도권 통·폐합 강조  
보수권, 호남 선거구 축소 주장 등  
정치권 공세에 공정한 방향 모색

투표연령 하향... 교내정치화 우려  
비례자유한국당 등 창당 계획에  
'위성정당 명칭' 여야 주장 엇갈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한 정치권의 각종 섹범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에 빠졌다. 특히 선거구 확정 관련 범여권은 수도권 통·폐합을 강조하고, 보수권은 호남지역 선거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정한 방향을 모색 중이다. 만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나온 문제점과 위성정당 관련 명칭 논란도 보완해야 할 쟁점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거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각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여야는 선거구 통·폐합이나 분구 작업에 앞서 진행하는 정당 의견 청취에서 유리한 지역구를 한 곳이라도 더 사수하기 위해 열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선거구는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확정한다. 지난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한 구간은 13만6056명, 하한 구간은

27만3129명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대 1이다.

앞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경기군포갑·을, 안산상록갑·을과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을 각각 통·폐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와 강원도 춘천시, 전남 순천시는 각각 2개 지역구로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 등은 인구 비례성과 표의 등가성 등을 거론하며 호남 지역의 석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절차상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든다. 구성한 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고,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실제 획정위는 앞서 지난달 30일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 정수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의 최종 결정권은 획정위가 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야 분쟁 속에서도 중립적인 선거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고등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민주교육 실현' 사이에서도 고심에 빠졌다. 국회가 앞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

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53만2000명의 새 투표권자가 생겼다. 일각에선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내 정치화와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혼란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미 가치관이 형성됐을 시기라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현재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교섭단체 대표 등에게 입법 보완 의를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이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후보자 기탁금에 대해서도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현재는 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것과 탈락한 후보자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촉발된 위성정당 명칭 여부다. 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 연동형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계획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패딩형 점퍼 보급목적 '자랑' 아냐



문영철 기자의  
국방 칼럼

무기체계 외의 군수품(전력지원물자)도 무기만큼 중요하다. 장병의 안전과 사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훌륭한 전력지원물자의 신속한 보급이 이뤄진다면, 장병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군의 전력지원물자 보급은 '무엇이 목적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장병과 국민을 위협인지, 군의 성과와 정부의 치적을 위협인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국민참여예산으로 '패딩형 동계 점퍼'를 지난해 11월부터 보급했다. 일반 작전환경이 아닌 병영생활용으로 보급이 된 것이라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장병들이 추위를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군 당국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 사전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패딩형 동계점퍼 보급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의지가 앞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였다.

6월 사이즈를 측정하고 11월 초에 이미 1만5000벌 정도가 두 곳의 전방사단에 보급됐고, 육·해·공군의 격오지 부대에 연말까지 보급을 마친다는 게 당시 군 관계자의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의 말처럼 지난해 육군만 약 10만벌의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됐다.

그런데 보도이후 '사이즈가 작아 못 입는다'는 소문과 제보가 들어왔다. 소문은 사실이었고, 설마는 역시가 돼버렸다. 12일과 13일 일부 매체들은 패딩형 동계점퍼가 사이즈가 작아 부대 창고에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 군의 관계자는 "해·공군의 경

우 보급대상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사이즈 문제가 크지않았지만 보급대상 인원이 많은 육군의 경우 먼저 사이즈를 측정한 인원들이 더 큰 사이즈를 가져가면 문제가 커졌다"면서 "약 2000벌 정도가 보급되지 않고 보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맞지 않는 사이즈에 대해 관련업체는 '동계점퍼의 사이즈 규격을 굳이 잘 못 설정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납품업체는 우리와 경쟁사이지만 건실한 기업이다. 동계패딩과 하절기 셔츠는 사이즈 측정방식이 달라야 하는데, 굳이 업체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추가 보급을 위해 납품업체에 의뢰를 했지만, 해당 업체는 납품단가가 맞지 않아 추가발주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5만7000원 정도로 책정된 납품예산가에도 훨씬 못미치는 4만8000원에 납품했기 때문이다.

최초 납품업체는 캘빈클라인, 리바이스 등의 국내협력 업체로 나름 건실한 기업이였다. 군은 이 회사가 생산한 패딩형 동계점퍼가 보급되자 '인박심 동영상' 등을 제작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군의 홍보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좋았지만, 보급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진다.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어야 할 장병들이 작아서 입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병 사용자 중심의 보급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올해 123억원을 추가로 패딩형 동계점퍼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초 요구한 13만원대의 소프트셀(전투임무 등 활용가능) 대신 타이트한 패딩형 동계패딩에 돈이 들어간다. 심지어 해외파병 부대에도 '경패딩'이라는 이름으로 보급이 추가될 예정이다. 자랑보다 보급의 본질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captinm@

## SK이노, 협력사 상생기금 29.6억 전달

SK이노베이션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SK이노베이션은 13일 SK 울산CLX 하모니홀에서 '2020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 전달식'을 갖고 총 29억6000만원을 SK이노베이션 계열 협력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상생기금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의 기본급 1% 기부와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회사가 출연해 조성한 1%행복 나눔기금 중 절반인 25억6000만원에 정부 및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모여 조성됐다.

특히 올해는 정부와 협력사가 기금 조성에 동참하면서 SK이노베이션 협력사 상생기금은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상생 발전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과 정부, 협력사가 함께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추후 협력사들과 협의를 통해 협력사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이준희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의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이성훈 SK이노베이션 노조위원장, 박경환 울산CLX총괄을 비롯한 협력사 대표와 구성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이 1% 행복나눔 참여로 만들어 내는 사회적 가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한편 가치 공유에 따른 기업 이미지 향상과 기업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사 상생기금 사업은 상호 협력하는 기업 문화를 SK이노베이션 노사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

## 몰아치는 '추풍낙검'... 다음은 중간 간부급?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립각  
靑 "압수할 물건 특정안돼" 거부  
檢 "적법한 영장" 압수 거절당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풍낙검(秋風落檢)'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 인사 물갈이에 최근 법조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던 지휘부가 대거 좌전됐음에도 검찰은 청와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급까지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 예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은 13일에도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먼저 검찰은 지난 10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할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거부했고, 검찰은

압수 물품 없이 철수했다.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이었고 별도로 상세한 제출 목록까지 요청했지만, 압수수색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다. 2016년 10월 국정농단 수사 때도 이같은 방식으로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적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재집행하는 등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법무부가 준비 중인 검찰 조직 개편과 관련해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도 지난주 단행한 인사 때처럼 대대적 물갈이를 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석대성 기자

# 공공기관 초임 3669만원 (평균) 産銀 등 국책銀 5000만원

인크루트-알바콜 취합·분석  
채용규모 한국철도공사, 한전 順

올해 공공기관 초임연봉은 평균 3669만원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 517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순으로 초임 연봉이 높았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202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참여한 141개 기관의 신입사원 연봉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집계에 반영된 공공기관은 공기업 31곳, 준정부기관 70곳, 기타공공기관 40곳이다.

지난해(2019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여 기관 기준) 공공기관 초임연봉 평균 3642만원과 비교하면 약 0.7% 포인트 올랐다.

초임 연봉이 가장 높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5173만원)의 초임 연봉은 실적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년(4989만원)보다 184만원 증가했다. 이어 ▲IBK기업은행(5000만원) ▲KDB산업은행(49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4894만원/성과급 별도) ▲한국과학기술원(4851만원), ▲한국수자원공단(4769만원~6804만원 중 하한 기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4669만원) ▲국방과학연구소(4608만원)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초임 연봉 TOP5〉 /인크루트



(4553만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4535만원) 순으로 초임연봉 상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의 경우 초임 연봉 디렉토리 북에 기재된 연봉 상한선 680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가장 높다.

지난해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공공기관(2019년 7월 인크루트 조사) 1위에 꼽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올해 초임 연봉은 4457만원으로 10위권 밖이었다. 8개 사업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분야가 평균 3714만원으로 초임 연봉이 가장 높았고 이어 ▲농림수산환경(3696만원) ▲SOC(3677만원) ▲연구(3673만원) ▲금융 분야(3612만원) ▲고용보전복지(3551만원) ▲산업진흥정보화(3535만원) ▲문화예술외교법무(3381만원)분야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 올 대입 입학자원 크게 감소

# 의대·치대·한의대 오히려 상승

재수까지 감안... 최상위권 수험생 多의·치·한의대 평균 경쟁률 7.29대 1 정시로 이월 인원 감소해 모수 줄어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3 지원자를 위주로 대입 입학자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의대·치대·한의대 등의 학계열 정시모집 경쟁률은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감소한데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고3 수험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수를 감수하고라도 의학계열에 도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0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정시모집 인원은 정원내 1837명인데 1만339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2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9학년도) 6.79대 1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모집인원은 감소(184명)했고, 지원자(335명)는 더 늘었다. 올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치대·한의대 선호도가 예년과 비교해 더 높아진 셈이다.

우선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감소해 모수가 줄었다. 올해 의대·치대·한의대 수시이월 전 정시모집 인원은 1627명으로 전년(1662명)보다 35명 적을 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톨릭대, 동아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등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대학이 늘었고, 이 기준을 통과해 수시모집에 등록한 인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시모집으로 이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지원자 현황〉

/진학사, 각 대학

구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증감	
	수시	최종	지원자수	경쟁률	수시	최종	지원자수	경쟁률	최종	지원자수
	이월전	모집			이월전	모집				
전체	1,662	2,021	13,731	6.79	1,627	1,837	13,396	7.29	-184	-335
의예	1,095	1,306	8,070	6.18	1,093	1,255	7,816	6.23	-51	-254
치의예	245	335	2,101	6.27	240	271	1,739	6.42	-64	-362
한의예	322	380	3,560	9.37	294	311	3,841	12.35	-69	281

월된 인원이 감소했다.

의대·치대는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지원자도 감소했지만, 한의예과의 경우 모집인원이 69명 감소한 반면, 지원자는 281명으로 크게 증가해 눈길을 끈다. 이는 다군 모집의 동국대 한의예과가 전년도 수확가형, 과탐 응시의 자연계열만 모집하다가, 2020학년도에 수확나형, 사탐 응시자인 인문계열 수험생 5명을 별도 모집했기 때문이다. 실제 동국대 한의예과 인문계열 지원자가 397명 몰리면서 7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0학년도 수능에서 수확나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이 매우 커졌고, 다군에서 상위권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지원할 대학이 많지 않아 수확 성적에 우수한 수험생들이 다군에서 수확 비중이 높은 동국대 한의예과로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의예과 지원자는 1739명으로 전년(2101명)보다 362명 감소했고, 의예과는 7816명이 지원해 전년(8070명)보다 254명 줄었다. 치의예 모집 대학이 적은 데다가 작년보다 모집 인원도 감소하면서 대학과 모집 인원이 많은 의

예과로 소신 지원한 수험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예과 모집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정도만 경쟁률이 올랐고, 그 외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 대학 중에는 경상대, 충북대, 원광대 등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들이 많았다.

상위권 대학들의 2021학년도 이후 정시모집 확대 분위기와 올해 고3이 되는 재학생 수도 감소함에 따라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재수까지 염두하고 지역 의예과에 소신 지원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 연구원은 "올해도 고3 재학생이 5만 6000여명 가량 감소하므로 점수 변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막연한 자신감으로 의대·치대·한의대 진학을 생각하기 보다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3개 정도 찾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직무·능력 중심

노동부, 기업 지원 방향 발표

“임금, 과도한 연공성 줄이도록 지원” 전문 컨설팅 지원... 4억 예산 책정 명확한 지침 없어 확산 미지수

정부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임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제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 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 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국내 기업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호봉제 중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갖춘 곳이 많다.

호봉제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100인 이상 사업체의 호봉제 비율은 58.7%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임금 대비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은 3.3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연공급이 강한 일본(2.5배)과도 격차가 컸다.

이런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국내 기업의 연공급 임금체계가 과거 고도성장 시기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도 성장 과정에 있어 감당할 수 있었으나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노동자의 고령화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렸고 이는 청년 채용 여력의 감소와 고령자의 조기 퇴직으로 이어졌다.

근속 기간이 긴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호봉제 중심의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무엇보다도 근속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김은미 교수팀, 게이트재단서 45만弗 지원

〈이화여대〉

〈연구비〉

국내 연구진 최초 3회 연속 선정

이화여자대학교는 국제대학원 김은미 교수 연구팀이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게이트재단)으로부터 '한국글로벌 보건 전략(Korea Global Health Strategy)' 주제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향후 3년간 총 45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게이트 재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멜린다 게이츠가 2000년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재단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질병 퇴치, 빈곤 구제, 교육기회 확대, 정보기술 접근성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국내 연구진으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게이트 재단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연구팀은 지난 2013년 9월~2016년 8월까지 '국제 보건 의료 및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 영유아 사망률 감소와 모성건강 증진을 위한 소년 건강에 주목, 개발도상국의 18세 미만 청소년기 소녀들을 조혼, 조기임신 및 출산, 성폭행, 영양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실조, 교육기회 부족,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것을 역설했다.

이어 2016년 11월~2019년 10월까지 '한국 글로벌 보건 전략'을 주제로 개발도상국 소녀 건강과 보건 ODA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글로벌 보건협력에 대한 국·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건강 학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또 매년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등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연구결과를 출판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수행기관 선정에 따라 한국의 ODA 연구를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연구의 초점을 '여성, 소녀 및 영유아 건강'에 맞출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 비상교육

### 실력 ↑ '개념플러스연산'

글로벌 교육 문화 기업 비상교육은 개념을 잡아 연산실력을 높이는 연산 학습서 '개념플러스연산'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개념플러스연산은 초등수학 전 단원의 기초 개념을 쉽고 간결한 '한 컷 개념'으로 요약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했다. 초등 방정식 계산 비법을 수록해 빠르고 정확한 연산 능력을 길러주는 연산 전문 교재다.

교재는 메인 북과 클리닉 북으로 나뉜다. 메인 북은 개념별 연산훈련 문제, 수 감각을 키우는 연산 비법 강의, 연산 평가로 구성했다.

클리닉 북은 개념별로 부족한 연산 실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연습 문제로 엮었다.

/한용수 기자

초등수학 연산 학습서 '개념플러스연산' 표지 /비상교육



THINKWARE

아이나비

# 아이나비 CONNECTED

스마트폰으로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아이나비 QUANTUM2

국내유일 전후방 QHD 커넥티드 블랙박스



## 아이나비 Connected

NB-IoT(협대역 사물 인터넷 기술) Connected 기술을 탑재하여  
주차 충격 알림부터 차량 정보까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통신형 블랙박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나비 CONNECTED

전·후방 320° QHD

F1.6 후방렌즈 | Vision BSD | Extreme ADAS | 울트라 나이트 비전 | 전방위 주차녹화 | 주차 저전력 강화 | Format Free 2.0 | Drive X



# 박영선 장관 '세계경제포럼' 이사 위촉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세계경제포럼(WEF) 이사에 위촉됐다. 박 장관은 오는 2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0년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격으로 참석한다.

AMP 이사는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이며 직위의 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AMP 이사회는 제조혁신 분야에서 세계 주요 정부 및 기업의 리더 2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1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WEF는 한국의 혁신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주무부처인 중기부 역할에 주목, 박 장관을 이사로 위촉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박 장관은 선진 제조 및 생산(AMP) 이사회 이사 자

# 프랜차이즈 브랜드 M&A



이상현  
창업칼럼

많은 기업이 필자에게 브랜드 M&A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견기업들이 신사업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선호하는 기조증가에 따른 수요증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존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는 가맹본부나 사모펀드(PEF) 운영자들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사업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와 아이터들의 회전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본사들이 신규브랜드를 출시하는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회전 주기는 약 5년 정도다. 그 의미는 5년 정도 운영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본사들은 신규 브랜드를 모색하거나, 브랜드의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지속하려는 행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유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소비의 회전주기가 짧아짐으로 인해 본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특징 중 신규브랜드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2010년 이후 본사들 또한 더욱 M&A를 통한 시장진입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신규 브랜드 개발보다 경쟁력이 있으며 안정적으로 창업 시장에 진입할 수 있

는 사업 성장 방법으로 브랜드 M&A를 선택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최단기간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관리시스템이 부재의 브랜드를 단기간 매입 후, 성장동력 극대화를 통해 시세 차익을 남기기 좋은 사업과 투자처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중·소형브랜드들의 M&A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탑재했으며 수익적 측면에서도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다.

할리스커피, KFC, 놀부, 블루클럽, 배달의민족, 공차, 웅진,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버거킹, BHC, 크라제버거, 불소식당, 큰맘할매순대국 등 중형브랜드부터 소형 브랜드까지 브랜드 M&A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많은 브랜드가 M&A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장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브랜드를 선별하는 차별화 전략이 필수라 하겠다. 새로운 시장으로의 안정적 진입과 투자 대비 수익성 증가를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는 어떠한 조건을 탑재해야만 성공적 투자가 가능할까?

먼저 브랜드에 대한 1, 2차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구분하는 1차 소비자는 가맹점주를 의미하며, 2차 소비자는 실질적 충성고객을 의미한다. 결국 해당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와 만족도가 브랜드의 경쟁력이며 수익과 성장률의 근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맹점주들이 가지고 있는 본사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영업에 따른 적합한 마진율을 통한 수익

성 측면은 인수합병 후 재계약이나 우호적 협업 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맹점의 규모와 지역분포도 중요하다. 최소한 5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가맹점의 분포도에 따라 마케팅과 물류 지원, 관리시스템 등 실질적 수익기반과의 호환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100개 미만의 브랜드가 전국 단위로 산재한 위치기반이라면 유통과 매장관리를 위한 경상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아이터이나 업종에 따라 지역적 안배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 기업과의 통합 마케팅 측면과 유통채널의 합병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경쟁력 기반의 우수성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경쟁 관계도 역시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동종아이템 내지 유사 아이터와의 경쟁 강도가 항목별로 차별성과 경쟁적 우월성을 가졌는지도 반드시 따져 봐야 할 사항이다.

브랜드 경쟁력이나 규모적 측면에서의 절대적 경쟁자가 시장에 존재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어려울 수 있다. 가급적 모기업과의 협업이나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가능한 범위의 기업/브랜드와의 통합이 그러한 이유로 필요한 곳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M&A는 브랜드력, 가맹점주, 조직력, 수익성 측면에서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 결정할 수 있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KB국민은행, 미얀마에 한국어 CBT시험장건물 신축 기부**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미얀마 경제 수도 양곤에서 한국어 CBT(Computer-based Test) 시험장 건축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신축되는 한국어 CBT 시험장 건물은 총 4층 건물이다. 1층은 미얀마 노동부의 송출행정 사무실, 2~4층은 한국어 시험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이상화 주미얀마 한국대사, 도 모모 수찌(Daw Moe Moe Su Kyi) 미얀마 양곤주 노동부 장관, 최창수 KB국민은행 글로벌사업그룹 대표, 우요 아웅(U Myo Aung) 미얀마 노동부 차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자금운용본부 경영목표 달성 결의대회** NH농협은행은 지난 10일 자금운용부문이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0년 경영목표 달성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자금운용부문 임직원들은 법령과 제규정, 임직원 행동지침을 준수하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받는 농협은행 구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김행춘 부행장(앞줄 가운데)과 자금운용부문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협은행



**KT&G복지재단, 캄보디아·미얀마에 대학생 봉사단 파견** KT&G복지재단이오는 17일까지 캄보디아와 미얀마에 각각 대학생 해외봉사단 30명씩 총 60명을 파견해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생 봉사단은 캄보디아 씨엠립 주(州) 외곽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도서관 건립과 건물 페인팅 등을 진행하고, 미얀마 양곤지역에서도 사원(寺院)학교를 방문해 정수시설 및 화장실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KT&G



**관광공사, 中 청소년 겨울철 수학여행 유치** 한국관광공사는 겨울방학을 맞아 3500명 규모의 중국 수학여행 단체가 다음 달까지 서울과 인천, 대구 등지를 방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학여행 단체는 관광공사 상하이시사가 중국 장쑤문광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해 유치한 것으로, 화동 등 중국 각지에서 출발해 다음 달 초까지 7회에 걸쳐 한국을 찾는다. 2018년 대만 가우슝여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단체 방한 모습. /한국관광공사

## 인사

◆국회 ◇국회사무처 관리관 승진 △법제실장 고상근 △기획조정실장 홍형선 ○이사관 승진 △관리국장 여영준 △국회사무처 관준준 △국회사무처 박규찬 △국회사무처 정경윤 △국회사무처 정대영 △국회사무처 최병권 △경호기획관 최호호 ○이사관 전보 △의정연수원 교수 김상수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균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송주아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최용훈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허병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선춘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이신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국회사무처 이지민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철 ○부이사관 전보 △정보위원회 임법심의관 김사우 △여성가족위원회 임법심의관 김수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법심의관 상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법심의관 임명현 △국회운영위원회 임법심의관 정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법심의관 정홍진 ○국회입법조사처 이사관 전보 △경제산업조사실장 오명호 ○부이사관 전보 △사회문화조사실장 임강대훈

◆법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대전·충남지방법무청장 김주영 ◇고위공무원 승진 △부산지방법무청장 김홍철 ◇과장급 전보 △사회복무연수센터장 백종훈 △경인지방법무청 인천법무청장 김동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류정길 ◇과장급 승진 △입법동원국 현역모집과장 하성일

◆서민금융진흥원 △평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 황재호 △홍보협력실장 김소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장 전보 △홍보실장 이준석 △혁신전략실장 이병철 △경기남부지부장 임동환

◆한국콘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혁신소통팀장 성민경 △홍보팀장 변미영 ◇부원장 직속 △시설안전관리단장 조은동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정진규 △공정상생지원단장 박승준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장 이원희 △재무팀장 임규복 △정보보안팀장 신화범 △심사

평가팀장 유영진 ◇기업·인재양성본부 △기업육성팀장 박인남 △인재양성팀장 김희숙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장 연제혁 △문화기술개발팀장 이재은 ◇정책본부 △미래정책팀장 송진 △산업정책팀장 박희태 △정책금융팀장 백승혁 ◇개입본부 △개입산업팀장 곽성환 △개입유통팀장 김문경 ◇방송본부 △방송산업팀장 이도형 △방송유통팀장 김정욱 ◇대중문화본부 △애니캐릭터산업팀장 장인걸 △만화스토리산업팀장 박정연 △음악패션산업팀장 이혜은 ◇해외사업본부 △콘텐츠통출팀장 이경은 △한류사업팀장 김기현 ◇지역사업본부 △지역콘텐츠팀장 김성준 △실감콘텐츠팀장 유윤욱

◆국회도서관 ○이사관 전보 △의회정보실의 회정보실장 이신재 △법률정보실 법률정보실장 노우진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 정보봉사국장 김정혜 △국회기록보존소 국회기록보존소장 박미향 ○이사관 전출 △국회사무처 박선춘 ○이사관 전입 △기획관리관실 기획관리관 김경호

◆미래셋대우 ◇신임 △IR팀장 서창권 △Global혁신팀장 최정민 △Global시너지팀장 김만재 ◇전보 △홍보팀장 이남주

◆bhc ◇전무 승진 △경영지원본부 CFO 허명수 ◇상무 승진 △지원사업본부 연구소 김충현 ◇부장 승진 △가맹사업본부 김정열 △가맹사업본부 오승우 △지원사업본부 마케팅팀 김지현 △지원사업본부 재무팀 정승원 △지원사업본부 홍보팀 김동환

◆아주캐피탈 △리테일금융본부 지점장 △부산지점장 김한수 △서울지점장 허찬수 △경인지점장 이상범 △광주지점장 구본탁 △채권본부 센터장 △경인센터장 이우관 △강북센터장 전응수 △충청센터장 장희성 △커머셜금융본부 영업소장 △광주커머셜영업소장 최양현 △경인커머셜영업소장 이규성 ◇부서장 △커머셜금융팀장 강동수 △채권관리팀장 이승호 △채권기획팀장 구민우 △인사노무팀장 배규정 △준법감시팀장 김정준

◆IBK투자증권 [보임] ◇본부장 △금융상품본부장 김기연 △법인영업본부장 허경량 △강

북영업본부장 김성근 △강남영업본부장 손관 △서부영업본부장 이상철 △영남영업본부장 김성범 △센터장 △영양부장 백기억 △IBK WM센터 중계동센터장 이영훈 △IBK WM센터 역삼센터장 유유신 ◇부/실장 △영양추진부장 이두희 △스마트금융부장 전정석 ◇팀장 △부동산금융1팀장 정철윤 △부동산금융2팀장 김진관 △경영관리팀장 권오현 [승진] ◇상무부 △프로젝트금융본부장 백동훈 △채권영업팀장 박진영 △중소기업분석부장 유육재 △감사실장 박양수 ◇이사 △대구센터 배성원 △IBK WM센터 역삼센터장 유유신 △구조금융1팀장 김성환 △인사부장 김주영 △경영기획실장 현진길 ◇부장 △노조위원장 이상용 △IBK WM센터 강남센터장 김용주 △IBK WM센터 반포자이센터장 허은진 △영양추진부 이원형 △FICC운영팀장 문정훈 △IBK금융팀 박철수 △종합금융2팀 정철윤 △재산신탁팀장 이소라 △리스크관리부장 한종숙 ◇차장 △영양추진부 서정석 △IBK WM센터 창원센터장 윤성곤 △법인영업1팀 최준주 △금융상품영업팀 강세정 △부동산금융2팀 김완영 △종합금융1팀 김환희 △IPO1팀 이시우 △IBK기업금융1팀 이종훈 △전략기획팀 이정훈 △투자분석부 박옥희 △컴플라이언스팀 유재규

## 부음

▲최경애씨 별세, 조성대(목사)·조성욱(아이맥 초 대표)·조성화씨 모친상, 박형용(굿타운 대표)·이진우(매일경제신문 산업부장)씨 장모상, 박희정씨 시모상 = 13일 오전 3시20분, 창원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7시.  
▲이기욱씨 별세, 최동수(충북도 축수산과 친환경축산팀장)씨 모친상 = 13일 오전 3시 45분, 청주 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서석인 씨 별세, 서병수(전 부산시장)·하수(부일석유 대표)·현수(부일여객 대표)·범수(전 경찰대학장)씨 부친상 = 13일 오전,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 ‘H&B 게 섰거라’ 아모레·LG생건 편집숍으로 정면돌파

〈헬스앤뷰티 스토어〉

밀레니얼세대 H&B 선호에 단일 브랜드 로드숍 맥 못춰

아모레퍼시픽 makeup 체험 등 전문 서비스 특화매장 선보여 LG생활건강 브랜드 한 데 모은 ‘네이처컬렉션’ 매장 확대 주력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H&B 스토어의 몸집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화장품 로드숍이 축소되고 있다.

이에 국내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편집숍 체제로 운영을 전환해 소비자의 발길을 돌릴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의 멀티 브랜드숍 아리따움은 2008년 1호점 문을 열고 소비자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한울, 마몽드, 라네즈, 아이오페 등 아모레퍼시픽의 유명 브랜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점과 함께 아리따움의 대표 상품인 아이세도우 ‘모노아이즈’와 네일상품 ‘모디네일’이 20대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리브영, 랄라블라, 립스 등 H&B 스토어가 늘어나고, 입점하는 화장품 브랜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세가 한풀 꺾였다.

아리따움 매장은 2015년 1346개에 달했지만, 현재 전국 1100여개로 줄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2018년 9월부터 자사 브랜드 외의 제품까지



프로 메이크업 스튜디오 매장 내부.



뷰티인플루언서가 네이처컬렉션 매장에서 뷰티 방송을 촬영하고 있다.

입점시킨 ‘아리따움 라이브’를 선보였다. 일반 아리따움 매장에서 아리따움 라이브 매장으로 전환한 점포는 290여개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올리브영과 같은 H&B 스토어가 화장품 유통채널 강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단일 로드숍이나 자사 브랜드 위주로 운영되는 브랜드숍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 ◆특화 매장으로 차별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2월 ‘아리따움 프로 스킨케어 랩’을 오픈한 바 있다. 아리따움의 스킨케어 서비스 특화 매장으로, 선별된 브랜드의 핵심 제품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테스트 및 뷰티 기기(피부과/에스테틱)를 활용한 스킨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피부 진단 프로그램 ▲LED 스파 프로그램 ▲스킨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다.

메이크업을 전문으로하는 매장도

있다. 지난 11월 말 마포구에 오픈한 ‘프로 메이크업 스튜디오’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직접 경영하며 전문적인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장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엄선해 추천하는 화장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서비스/메이크업 레슨/눈썹 왁싱/네일 케어 등 전문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아리따움 관계자는 “뷰티 전문성에 대한 고객의 니즈와, 증가하고 있는 메이크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아리따움 프로 메이크업 스튜디오가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 ◆네이처컬렉션으로 승부

LG생활건강은 편집숍 ‘네이처컬렉션’ 확장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로드숍 단일 브랜드 더페이스샵을 네이처컬렉션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것. 2016년 2월 첫 선을 보인 네이처컬렉

션 매장은 더페이스샵 매장을 전환하면서 매장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실제로 네이처컬렉션 매장은 2016년 68개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484개로 몸집을 키웠다. 반면, 더페이스샵 매장 수는 2016년 1138개에서 지난해 609개 매장으로 축소했다. 네이처컬렉션은 올 상반기 500호점을 오픈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처컬렉션은 더페이스샵, CN P차앤박, 비온드, 이자녹스, 수려한, fmgf 등 LG생활건강의 화장품 브랜드를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LG생활건강의 자체 편집숍이다.

업계 관계자는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은 여러 브랜드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H&B 스토어나 편집숍 스타일을 선호한다”며 “향후 편집숍과 H&B 스토어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온장고 음료’ 지고 ‘즉석 커피’ 대세로

CU 즉석커피 매출 34.5% ‘경풍’

겨울철 편의점 음료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올 겨울, 추운 날씨에 수요가 급증하는 온장고 음료의 매출은 예년과 달리 시들한 반면, 즉석원두커피의 매출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CU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 주요 음료들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두유 2.2%, 꿀물 5.3%, 차음료 6.0%, 한방음료 8.5% 등 대표적인 온장고 음료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와 반대로 CU의 즉석원두커피 GET 커피의 경우는 34.5%나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뛰었다. 최근 따뜻한 겨울 날씨와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트렌드에 힘입어 아이스 커피의 매출 비중도 15%에 달했다.

GET 커피는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든 12월부터 1월 중순 현재까지 CU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담배 제외) 중 편의점 인기 상품인 소주, 맥주, 바나나우유 등을 제치고 꾸준히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겨울철 따뜻한 음료를 찾는 고객들이 온장고 음료 대신 1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원두를 바로 내려 마실 수 있는 즉석원두커피를 더 많이 찾고 있는 것이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 “강남 한복관에서 카페 운영할 청년 찾아요”

신세계센트럴시티가 ‘창업 꿈나무’ 청년들의 상생 동반자로 떠올랐다.

센트럴시티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두 명의 카페 창업자를 꿈꾸는 청년들의 매장 운영을 지원한 데 이어 오는 4월 중순부터 새롭게 영업을 이어갈 세 번째 주인공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2월9일까지 청년 창업자를 공개 모집하며, 6개월간 카페 운영이 끝나면 향후 창업 지원금까지 제공한다.

‘청년커피LAB’ 창업자 모집 센트럴시티서 4월부터 운영 만39세 이하...내달 9일까지

하루 100만명 이상의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강남 센트럴시티는 서울의 대표 맛집 거리로 통하는 파미에스테이션(10개국 51개의 식품 브랜드 미식공간 4500평 규모) 한가운데에 ‘청년커피LAB’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창업자를 꿈꾸는 청년을 돕고 있다.

만 20세부터 39세 이하로 사업자 등



청년커피LAB.

／신세계백화점

등록을 하지 않은 대한민국 청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후 사업 계획 등 1차 서류심사로 10여명의 후보를 선정하고, 2차 면접심사, 3차 심층면접, 바리스타능력검증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초 ‘청년커피

LAB’을 운영할 세 번째 주인공이 탄생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1인은 6개월간 카페 운영이 끝나면, 마련한 자본금과 경험을 토대로 향후 원하는 지역에 창업을 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오비맥주 ‘OB라거 랄라베어’ 패키지

오비맥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중순부터 전국 대형마트를 통해 ‘OB라거 랄라베어’ 전용잔 패키지(사진)를 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오비라거 355ml 12캔과 전용잔 2개, ‘랄라베어’ 스티커 1매로 구성된다. 전용잔에는 OB라거의 상징인 곰 캐릭터 ‘랄라베어’와 복고풍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번 스페셜 패키지는 기존 12캔 패키지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박인용 기자

## CJ제일제당 美 슈완스 ‘레드 바론’ 피자 수입

CJ제일제당이 냉동 피자 사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지난해 인수한 미국 슈완스의 대표 제품을 국내에 선보여 시장 영향력 확대에 집중한다. 슈완스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기존 ‘고메’ 피자 라인업을 전면 업그레이드해 정채기에 접어든 냉동 피자 시장의 성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13일 CJ제일제당에 따르면 국내 냉

동 피자 시장 규모(닐슨 자료 기준)는 지난해 2016년 198억원에서 2017년 880억원, 2018년 952억원으로 3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주목 받았다. 지난해 11월까지 시장 규모는 약 587억원으로, 867억원을 기록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슈완스의 대표 피자 브랜드 ‘Red Baron(레드 바론)’을 국내에 선보인다. ‘레드 바론’은 지난 1976년 첫 선을 보인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정통 미국식 피자 브랜드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레드 바론 딥디쉬 치즈피자’로, 깊은 접시 모양인 딥디쉬(Dep Dish) 피자의 바삭한 도우와 깊고 진한 치즈 풍미가 특징이다.

정체된 소비를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트렌드에 발맞춰 치즈의 맛 품질이 뛰어난 딥디쉬 제품으로 우선 출시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이베이코리아 “새해도 스마일캐시 혜택은 쭉~” 스마일캐시 적립 노하우 등 소개

대한민국 온라인 유통기업 1위 이베이코리아의 간편결제 스마일페이이 새해를 맞아 쏠쏠한 ‘캐테크(스마일캐시+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

스마일페이는 신용카드나 마일리지 이용 실적을 잘 관리해 이익을 보는 ‘카드테크(카드+재테크)’ 등이 새해 주목 받고 있는 점을 반영, 오는 31일까지 스마일캐시를 쏠쏠하게 적립할 수 있는 ‘캐테크’ 노하우를 제공한다. W컨셉, 코오롱물, H패션몰, 오늘의집, AP몰, 디한섬닷컴에서 스마일페이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상 첫 결제 시 스마일캐시 최대 3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며, 스마일캐시로 컬처캐시 충전 시 스마일캐시 3% 자동적립(월 최대 1만5000원), 제로페이 결제 시 스마일캐시 2% 자동적립(단당 최대 1000원) 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 동원홈푸드 더반찬 조리 실시간 방송 ‘더반찬 LIVE’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더반찬이 음식의 조리 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볼 수 있는 ‘더반찬 LIVE’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더반찬 LIVE’는 서울 가산동에 위치한 D SCK센터 조리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더반찬 HMR의 재료 손질부터 조리, 포장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소비자가 더반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직접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더반찬은 회원수가 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신선 HMR 전문 온라인몰이다. /박인용 기자

## 뒤집으면 새 옷... 실용성 의류 인기

겉감, 안감 구분없는 '리버시블' 탈부착 가능해 활용도 높아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연출해 입을 수 있는 '다목적형 디자인'이 패션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다목적형 디자인은 여러 스타일의 제품 혹은 기능 등이 하나의 제품에 집합되어 있는 것으로 여러 불규칙한 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연출과 실용성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겨울처럼 번덕스러운 추위가 반복될 때 상황과 용도에 따라 변형해 입을 수 있기에 다목적형 디자인을 반영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겉감과 안감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뒤집어 입을 수 있는 '리버시블'이 있다. 블랙야크가 선보인 'M트로이자켓'은 친환경 리사이클 울 소재를 적용한 겉면과 기능성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한 안면 모두 착용이 가능한 리버시블 제품으로, 다양한 TPO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여성용 제품은 겉면에는 캐주얼한 스트라이프 면소재, 안쪽 면에는 다이아몬드 퀼팅을 적용한 긴 기장의 리버시블 패딩으로 디자인됐다.

깔끔하고 여유 있는 핏의 스타일링을 원하는 여성 소비자들은 남성용 제품을, 조금 더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원한다면 여성용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

대세 아이템 플리스를 겸하고 싶은 소비자라면 뉴발란스 '우먼 퍼피 플리스'를 눈여겨 보자.

이 제품은 리버시블이 가능한 플리스 집업으로 뒤집으면 심플한 디자인과 소재



블랙야크 'M트로이자켓' 남성용 제품의 겉면과 안면

의 바람막이로 입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양면으로도 부족하다면 3가지 스타일을 연출해 입을 수 있는 3in1재킷도 있다. 미니멀한 준지만의 미적 감각과 캐나다구스의 클래식한 디자인이 융합된 시너지를 낸 협업 상품 중 '레졸루트 쓰리 인 원 파카'는 다운 필드 셀과 베스트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함께 착용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블랙야크 역시 수분에 강한 AWC 패딩 충전제와 고어텍스 소재가 적용된 외피, 경량 소재가 적용된 봄버형 내피가 결합된 '엣지3IN1자켓'을 내놨다.

다목적형 디자인은 키즈 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입을 재미를 더해 아이들에게는 물론 실용성을 따지는 부모님의 만족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탈부착이 가능한 방한용 마스크가 적용된 블랙야크 키즈의 '모듈 다운자켓'과 '블러다운자켓'이 있다.

마스크가 불편할 수 있는 아이들이 후드 부위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패딩 마스크를 디자인해 방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떼어서 따로 세탁이 가능해 아이들의 위생관리까지 돕는 편의를 더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보령제약, 의약품 포장 바꿔 안전·편의성 ↑

보령제약이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의약품 외부 포장을 변경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13일 보령제약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편의성 개선 및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했다. TF는 의약품의 포장 디자인을 개선해 정보 전달력을 높이고 다회 사용 의약품의 개봉 후 안전성 시험을 진행했으며, 자동화 설비인 로보조제기에 맞추어 바이알 품질개선을 검토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보령제약 겔포스엠

먼저 유사한 외부 포장 디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의약품의 제품명, 함량 등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21개 품목(39개 규격)의 색상을 변경하고 함량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외부 포장 디자인을 변경했다. /이세경 기자

## 메디톡스 '뉴라미스' 임상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메디톡스의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임상 논문이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메디톡스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비교 임상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유럽미용피부과학술지'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13일 밝혔다. 유럽미용피부과학술지는 과학기술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에 등

재된 국제 저명 학술지다. 중등증 이상 안면중양부 볼륨 감소로 교정이 요구되는 성인 88명이 임상 대상이었다. 무작위배정방법에 따라 볼륨측정 뉴라미스, 반대쪽(대조군)은 엘러간 제품 '주비덤 볼루마 with 리도카인'을 각각 주사했다. 24주 뒤 피험자의 개선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 시술 후 만족도 평가에서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 100%였다. /이세경 기자

# '中은 임상천국' K바이오 신약 가속

## 삼비에피스 'SB8' 임상승인 앞뒀 셀트리온 '렘시마' 임상 환자등록 대응계약 '나보타' 임상3상 본격

의약품 시장 규모가 세계 2위의 큰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임상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13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중국약품관리국(NMPA)에 항암제 'SB8' (성분명 베바시주맵)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올해 안에 SB8의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8은 전이성 대장암과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에 쓰는 항암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1

월 중국 '3S바이오'와 SB8의 중국 내 판권을 위임하고 항후 임상, 허가, 상업화에 대해 협업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올해 SB8의 임상시험까지 허가받으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중국에서 바이오시밀러 3종의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해 유방암 치료제 'SB3', 이달 희귀질환 치료제 'SB12'의 임상 3상 시험을 각각 허가받았다.

셀트리온은 중국에서 진행 중인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맵) 임상 3상 시험 환자 등록을 완료했다. 셀트리온은 2017년 5월 중국 현지에서 램시마 임상 1상과 3상 시험 계획을 동시에 승인 받았다. 이후 중국과 협의해 임상 3상만 진행하기로 하고 2018년 10월부터 임상 3상을 진행해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예상보다 이르게 환자 모집이 완료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항후 트룩시마, 허주마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응계약도 지난달 보툴리눔 독신 제제 '나보타'의 중국 임상 3상을 본격화했다. 대응계약은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보툴리눔 독신 제제가 2개뿐이라는 점에서 항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상업화를 눈앞에 둔 임상 3상뿐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중국 시장에서 개발을 진행하기도 한다. 브릿지바이오는 중국 NMPA로부터 궤양성 대장염 신약 후보물질 BBT-401의 임상 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임상은 오는 5월 개시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 진단분석장비 독점계약... R&D 저변 확대

### JW바이오사이언스, '제올'과 협업 독자적 기술로 정확성, 신뢰성 높여 고품질 전용 시약 선택... 검사성능 ↑

JW바이오사이언스가 글로벌 협업을 통해 진단시약 연구개발(R&D) 역량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JW홀딩스의 손자회사인 JW바이오사이언스는 글로벌 진단분석장비 전문기업인 '제올(JEOL)'과 생화학 분석 장비에 대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JW바이오사이언스는 제올의 생화학 분석장비 전 모델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진단시약 R&D 기술력을 활용해 자체 시약 연구 개발에 나선다. 제올은 1946년에 설립된 진단 분석장비 전문업체로 전자광학기기, 계측기기, 반도체 장비 등을 개발·판매 중이며, 일본 내에서 생화학 분야 시장점유율 1위 업체다.

JW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도입하는 생화학 분석장비는 JCA-BM6010, JCA-BM6070, JCA-BM8000 시리즈로 혈액, 소변 등 다양한 검체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검사해 질병 유무를 진단하고, 치료의 효과까지 파악하게 해준다. 상위 모델인 JCA-BM



함은경 JW바이오사이언스 대표(오른쪽)와 사이트 신 제올 의료기기사업운영 총책임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000 시리즈의 경우 시간당 최대 9000개의 바이오마커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 제품들은 독자적인 마이크로 볼륨 기술을 적용해 검사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였고, 경쟁품 대비 유지보수가 간편해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컴팩트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동선을 최소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또 기존 제품들이 분석기 제조사의 전용시약을 사용할 수 있었던 데 반해 다양한 시약 전문 제조사의 고품질 전용시약을 선택할 수 있어 최적의 검사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앞으로 생화학 진단시약 개발을 본격화해 일본 등

외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국내 진단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JW바이오사이언스는 진단시약과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회사다. 패혈증 뿐 아니라, 췌장암 등 진단분야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체외진단키트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간편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한 현장진단검사(POCT)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다. 또 디지털 엑스레이·LED 무영등·미숙아보육기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들을 통해 필수 의료기기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세경 기자

## 맥도날드, 정규직 600명 채용... 역대 최대

맥도날드가 올해 대대적인 정규직 직원 채용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맥도날드가 1988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연간 최대 규모인 600여명이다. 먼저 맥도날드는 분기별로 레스토랑 관리직 매니저 공개 채용을 진행해 연간 200여명을 모집한다.

주요 업무는 고객 관리, 영업 관리, 품질 관리 등 레스토랑 전반의 관리이며, 외부 지원은 물론 기존 맥도날드 레스토랑 시급제 직원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맥도날드는 레스토랑

시프트 매니저직을 신설해 정규직 채용을 확대한다. 모집 규모는 연간 400여명이다. 기존 재직 중인 시급제 직원 중에서 지원을 받아 선발 예정이며, 선발된 인원은 정규직 매니저로 전환 채용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GS25 토털 하이패스 서비스 구축

편의점 GS25가 모빌리티(자동차 등의 이동수단) 플랫폼으로서의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하이패스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실적을 집계한 결과 ▲하이패스 누적 충전 금액은 350억, ▲하이패스 단말기와 전자카드 판매량은 50만개를 넘어섰고,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서비스 이용 건수는 시작 4개월만에 5만건에 육박했다. /신원선 기자

# CJ그룹, '문화' 꿈꾸는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1200여명 선발해 멘토단과 동아리 활동 6개 분야에서 나영석, 신승훈 등 멘토단 참여

2020년 새해를 맞아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지난 1월 11~12일 각각 CGV용산과 동대문 DDP에서 'CJ도너스캠프청소년 문화 동아리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문화를 꿈꾸는 청소년, CJ라는 꿈지기를 만나다'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동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 학생과 학교, 청소년기관,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CJ 임직원·업계 전문가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CJ도너스캠프청소년 문화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문화교육을 통해 창의력·인성 등



지난 1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CJ도너스캠프 청소년 문화동아리 쇼케이스 중 음악 부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랩으로 합창 공연을 펼치고 있다. /CJ그룹

을 키우고, 미래유망분야 중 하나인 문화산업에 진로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CJ그룹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9월 공모로 선발된 120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은 지난 4개월 동안 '방송, 영화, 음악, 공연, 요리, 패션·뷰티' 등 6개 분

야에서 나영석, 윤제균, 신승훈, 김문정, 김병필, 한해연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CJ 임직원 포함 업계 전문가, 대학생 봉사단 등 총 220명의 멘토단과 함께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친환경소재' 개발해야



기지 수첩

박인웅 <유통&라이프부>

친환경이 유통업계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업체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관련 정책 발표를 살펴보면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혼란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 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

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한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정례식장에서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로드맵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단계별 계획(로드맵)'은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등의 방안으로 상세하게 계획이 마련됐지만 1회용품 규제 대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회용품을 금지하기보다 친환경 소재나 대체 재질 용기의 사용 등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자원의 남용억제와 폐기물 원천감량이란 근본적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회용품 사용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문제에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친환경 소재 개발 장려를 통해 친환경 소재가 개발돼 시중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parkiu7854@metroseoul.co.kr

## LG헬로비전 AI로봇·드론 체험 '과학캠프' 개최

LG헬로비전은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3회 꿈마루 과학캠프'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은평대영학교에서 은평구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진행됐다.

'ICT기술 위에서 뛰놀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은 AI, 로봇, 드론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는 ▲드론 축구 경기 ▲업사이클링 로봇 만들기 ▲오조봇 코딩수업 등 놀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드론 축구 경기'가 인기를 끌었다. 드론 조작법을 배운 아이들은 실제 축구 경기를 하듯 드론을 조종하며 경기를 펼쳤다. 또 '업사이클링 로봇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의 기본적인 구조와



꿈마루과학캠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코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LG헬로비전

작동원리를 익히고,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되새겼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결심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 48년생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하루. 60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2년생 자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84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 소** 37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환경을 바꿔보자. 49년생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신경 써라. 61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73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85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
- 호랑이** 38년생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50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속할 줄 알아야 한다. 62년생 망설임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결단 필요. 74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둬라. 86년생 기분이 상해도 이해.
- 토끼** 39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51년생 맘에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63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면 일을 그르친다. 75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87년생 주변이 수상하니 말조심.
- 말** 4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52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64년생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76년생 먼저 주면 다시 큰 것을 얻는다. 88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 뱀** 41년생 모란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해야. 53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65년생 과유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77년생 날씨가 맑아지고 밝고 밝으로 나가보라. 89년생 오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 말** 42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룬다. 54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않으니 보람이 있다. 6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78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90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 양** 43년생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가져온다. 55년생 금전 문제로 속상할 일이 생긴다. 67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79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91년생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 원숭이** 44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옷들이 일이 잘 풀린다. 56년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 68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나 그래도 양보를 해 보라. 80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설득력이다. 92년생 익숙해져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 닭** 45년생 우물거스에서 승승 차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57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69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81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93년생 영업은 이익이다.
- 개** 46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는 가족의 원망을 듣는다. 58년생 무심결에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70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당신의 격을 높여준다. 82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이든 시작. 94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것.
- 돼지** 47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벅찬 하루. 59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음에서 희망이 보인다. 71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83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95년생 뒷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나서지 마라.



## 김상회의四季

조조의 선택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몰라 망설인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맞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 선택이 쉽지 않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기회는 적고 효용은 높여야 하다 보니 선택은 당연히 어려운 명제가 된다.

결정장애가 생기는 것은 가만히 따져보면 최적 정의 효용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선택과 결정은 적시성도 중요하기에 이리 재고 저리 재다가 결정의 때를 놓치면 실리와 명분도 동시에 잃게 된다.

계류(鷄肋)이라는 비유가 있다. 먹자니 불편하고 버리자니 아까운 경우를 일컫는 비유다. 조조가 유비와 한중 지역을 놓고 전쟁을 벌일 때 지지부진한 승패 속에서 진퇴 여부를 놓고 고민에 휩싸였다. 저녁 식사로 닭국을 먹고 있을 때 장수 하후돈이 들어와 오늘 밤 암호를 무엇으로 할지를 묻자 조조는 무심코 '계류'이라고 했다.

하후돈은 군사들에게 '계류'라고 암호를 명령 전달했다. 모두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할 때 장수 양수가 웃으며 말했다. "계류라면 닭갈비인데 닭갈비는 버리는 게 아까우나 먹을 것이 없으니 승상께서는 한중이 아깝기는 하지만 이득이 없으니 곧 철수할 생각이신 거요. 그러니 모두 짐부터 꾸리시오."

이를 보고 받은 조조는 깜짝 놀라며 자신의 속마음을 환히 읽은 양수를 살려 두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양수는 군을 어지럽혔다는 죄로 목숨을 잃었고 조조는 군대에 철수 명령을 내리고 돌아갔다.

조조는 처음에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귀로에 있었다. 생각을 들이지 않았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양수에게 마음을 들켜 자신의 마음을 읽어버린 신하를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양수를 죽이고 깔끔히 철수를 결정한 것일 수도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x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5					
	9	4	7	6				
2		1	8	9	5			
3	1	8			2	4	7	
	2			5				
7	9	5		3	6	1		
	4		8	7	1	2		
		1	9	4	8			
		6		2				

					3	6		
			9		1			
				1			4	
			5	7		6	9	
	5		8			2		
	4			9				
7	3		2					
6			1			4	2	
		2	6			1		

스도쿠 정답

5	1	7	2	9	4	8	6	
9	8	7	5	6	1	3	2	
2	6	1	8	9	7	5	4	
1	9	4	8	7	2	5	6	
6	8	5	2	1	3	9	7	
4	7	2	9	6	5	8	1	
7	5	1	6	8	1	2	9	
8	9	2	3	7	6	5	1	
2	6	1	5	9	4	7	8	
3	4	8	1	5	9	2	7	
2	3	9	6	7	8	5	1	
1	2	7	9	4	8	1	5	
6	8	9	7	1	5	2	4	
7	6	2	1	9	4	8	3	
8	1	5	6	7	9	2	4	
5	9	2	8	1	6	7	3	

문제 제공= 보스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6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67호

# 서울창업허브서 '쉐프 꿈나무'들의 요리실력 맛보세요 고교생 팝업 레스토랑 '활짝'

키친인큐베이터 공유주방 활용  
입주 기업·시민에 요리 피드백  
판매금 일부 영양원에 기부기로

서울창업허브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창업허브 내 키친인큐베이터 공유주방에서 한국 외식과학교등학교 학생 4인이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창업허브는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보육기관이다.

이번 팝업 레스토랑은 미래의 외식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창업 경험하게 함으로써 졸업 후 성공적인 창업 혹은 취업을 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키친인큐베이터의 오후 시간을 활용해 서울창업허브 입주기업과 인근 시민들에게 색다른 맛을 제공해 공유주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고등학생 참가자들이 판매한 금액 중 일부는 장기요양원인 '모니카의 집'에 기부한다.

팝업 레스토랑에 참가한 김혜린 학생은 "5일간 개별 주방을 운영하는 경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에서 열린 팝업 레스토랑에 참가한 고등학생 4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창업허브

험을 할 수 있었다"며 "구매자 대상 설문 등을 통해 메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오민식 학생은 "3학년이라 졸업 후 진로 선택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팝업 레스토랑으로 메뉴 검증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서울창업허브 김동조 선임은 "키친인큐베이터 팝업 레스토랑 덕분에 저녁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입주기업과 시민들이 맛과 가격에 놀

라고, 메뉴를 판매하는 셰프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은 이어 "앞으로도 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해 특성과 고등학교 및 타 기관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 프로그램을 전개해 취·창업에 고민하는 예비 요식업 준비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 제2의 토스·뱅크샐러드 키운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

중소벤처부-중진공

10기 총 1035명 규모... 최대 선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혁신 청년창업자 양성을 위한 2020년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과 민간운영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17개소에서 제10기 청년창업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총 1035명이다. 이는 개교 이래 최대 규모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다.

최종 선발된 창업자는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억원의 창업 사업화 지원금과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관련 장비 인프라, 창업 교육 및 코칭, 판로 개척 등 초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년층의 혁신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 분야 등 제조 혁신 분야의 선발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별 특화 산업 및 문화 콘텐츠 관련 업종을 모집 인원 중 30% 내외로 우선선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제10기 청년창업자에 대한 창업교육과 코칭 및 네트워킹 등 창

업 사업화 지원을 담당할 민간운영사 12곳도 모집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직영 운영하는 5개를 제외한 12개 소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민간운영사를 모집하는 청년사관학교는 ▲서울 ▲경기 북부 ▲인천 ▲강원 ▲대전·세종 ▲충북 ▲전북 ▲전남 ▲부산 ▲대구 ▲울산 ▲제주다. 민간운영사는 민간의 혁신성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청년창업자들의 창업 성공률 향상에 기여했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창업 3년 이내의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 졸업 후 성장을 위한 연계 지원까지 창업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제9기까지 총 3815명의 청년 창업자를 배출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9년간 총 2조 6888억원의 매출 성과와 1만 312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데이니스', 부동산거래 플랫폼 '직방' 등이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혁신기술을 보유한 많은 스타트업들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스케일업 되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 유니크미, 越 화장품시장 진출 본격화

축구 국가대표 쓰영과 전속모델계약

유니크미는 '베트남의 박지성'이라 불리는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르영 쉐언 쓰영 선수와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크미는 지난해 7월 제주산학융합원이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지역 수출 확대를 위해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시범 운영한 '제주플라자'에서 발효 마스크팩을 판매한 바 있다. 유니크미는 이번 전속 모델 계약으로 연간 3조원 규모의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 본격 진출할 계획이다.

르영 쉐언 쓰영 선수는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AFC U-23 챔피언십에서 대표팀 박항서 호의 주장과 주 공격수를 맡아 베트남에 준우승을 안긴 일 등 공신이다. 베트남 국민들은 쓰영 선수를 '베트남의 박지성'이라고 부른다.

유니크미는 베트남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인기를 얻고 있는 '쓰영' 선수



곽희옥 유니크미 대표(왼쪽)와 르영 쉐언 쓰영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선수가 전속 모델 계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니크미

가 글로벌 뷰티시장에서 사랑받아 온 유니크미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전속모델로 발탁했다.

현재 무릎 부상으로 재활치료 중인 쓰영 선수는 계약 체결 후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고, 베트남 축구 발전을 응원해 준 한국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더 좋은 경기를 펼치고, 유니크미가 베트남 국민들이 사랑하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리겠다"고 말했다.

곽희옥 유니크미 대표는 "쓰영 선수와 함께 마스크팩 라인을 강화하고, 기초화장품과 기능성 스포츠 라인, 남성 스킨케어 라인을 확장해 한국과 베트남 뷰티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라며 "특히 베트남에서의 판매수익금 중 일부는 베트남의 축구 발전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설립한 유니크미는 천연 발효 화장품 전문기업이다. 제주산 천연약초를 100일간 숙성시킨 '화산송이동굴 발효마스크팩'으로 중국·일본·러시아·인도네시아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유니크미는 신제품 출시에 주력해 키즈 라인 '베베갈랑', 산삼 향노화 스킨케어 라인 '유니크미 렌즈' 등을 출시했다. 올해에는 남성용 라인과 선스크린, 립스틱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 청호나이스 "취띠 고객님 '휘카페' 할인해드려요"

청호나이스는 새해를 맞아 취띠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 구매 시 월 렌탈료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열리는 이벤트는 '휘카페' 시리즈 전 기종이 해당되며 5년 의무약정 기준 매달 3000원씩 할인한다.

커피얼음정수기 '휘카페'는 2014년 7월 청호나이스가 세계 최초로 출시한 후 제품의 편리성과 위생성, 우수한 커피 맛 등이 호평을 받으며 지금까지 누

적 10만대의 판매를 기록한 청호나이스의 주력 제품이다. 현재 대용량 '휘카페 II'와 초소형 사이즈의 카운터탑형 '휘카페-IV 옛지', 슬림한 디자인의 '휘카페 550'과 '휘카페 NEW 700' 총 4종을 판매하고 있다.

'휘카페'에 적용한 커피캡슐은 현재 '아라비카 100%', '에티오피아', '프렌치바닐라' 등 총 9종으로 사용자는 기호에 맞게 커피를 즐길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콜러노비타, 헬스케어 비데로 체성분 측정

콜러노비타는 리모컨에 체성분 측정 기능을 담은 비데 신제품 '헬스케어 비데(BD-HD82M·사진)'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헬스케어 비데는 비데 리모컨을 통해 9가지 신체 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별도의 시간이나 공간을 할애하지 않고 매일 찾는 화장실에서 몇 초 안에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헬스케어 비데로 체성분을 측정하면 비데 리모컨에 체지방·근육·수분 3가지 대표 체성분 측정 결과가 표시된다. 그 외 9가지 체성분 측정 결과는 노비타 비데 앱 'My Novit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체성분 목표를 설정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콜러노비타는 헬스케어 비데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19일까



대리점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배한님 기자

# 넷기어, '칸딘스키展'서 뮤럴 캔버스 전시

넷기어코리아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칸딘스키 미디어아트 &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 전시에 뮤럴 디지털 캔버스를 지원·전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칸딘스키 미디어아트 & 음악을 그리는 사람들'은 현대 추상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실리 칸딘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열리는 미디어아트 전시다. 미술과 음악의 융합을 끊임없이 추구한

칸딘스키의 예술 이론을 2020년에 적용해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뮤럴 캔버스는 '칸딘스키와 뉴미디어'를 주제로 하는 1관에서 10여 개의 뮤럴 캔버스를 통해 칸딘스키의 대표작들을 선보인다. 뮤럴 캔버스는 칸딘스키 작품 원본의 질감과 붓터치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하는 칸딘스키 화풍까지 담는다. /배한님 기자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http://www.grovana.co.kr)



GMT  
1547.1135

### 호남대 쌍촌캠 부지 아파트 분양 시기 ‘관심’

제2종 일반주거지역... 6만4116㎡

광주도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 아파트 건립 상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시설 철거가 시작되면서 최종 사업 승인이나 분양 시기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9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호남대 법인 성인학원과 아파트 시행을 맡은 사업자 측은 최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옛 대학 시설 철거에 들어갔다.

성인학원은 광주시와 2년에 걸친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을 지난해 7월 마무리했다. 당시 협상은 2017년 3월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마련된 후 첫 적용 사례였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공공이 큰 틀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민간이 세운 개발 계획을 공공과 민간의 협의에 공공 계획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다.

성인학원은 학교 부지 해제 등으로 생기는 부동산 수익 등을 고려해 242억 원을 공공 기여해 근린공원 조성, 기반 시설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2015년 3월 광산캠퍼스로 통합 이전 후 유휴 부지로 남은 쌍촌캠퍼스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만4116㎡ 규모다. 성인학원 측은 쌍촌캠퍼스 부지에 970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용적률은 200% 이하로 10~34층, 평균 19층 아파트가 생긴다.

광주 정·관 중심지인 상무지구와 접근성, 지하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아 우수 대기업들이 시공사 선정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많지 않은 상무지구를 비롯해 쌍촌동, 금호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분양 시기를 주시하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건축위원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학교 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이 남았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 전남 땅 면적 늘었다.. 매립 등 영향

### 늘어난 규모 축구장 228개 크기 자산으로 환산시 169억 규모 율촌 산업단지 조성... 20만㎡ 늘어

전남도는 도의 면적이 지난해보다 160만㎡ 늘어난 1만2345km<sup>2</sup>로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늘어난 규모는 축구장 228개 면적이다. 2019년 전남지역 평균 개별공시지가(1만399원/㎡당)로 환산하면 169억 원 규모의 자산이 늘어난 셈이다.

여수시 율촌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140만㎡, 완도군 완도항 및 고흥군 발포항 공유수면 매립 신규 등록 등으로 20만㎡가 늘었다.

시군별 면적은 해남, 순천, 고흥, 화순, 보성 순으로 크고 필지 수는 해남, 고흥, 나주, 순천, 신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이용 현황별로는 임야가 6961km<sup>2</sup>(56.4%)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농지 3193km<sup>2</sup>(25.9%), 도로 446km<sup>2</sup>(3.6%), 대지 304km<sup>2</sup>(2.5%) 순이며, 기



전남도청 전경

타 1441km<sup>2</sup>(11.6%) 등이다.

전남의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고 면적은 경북과 강원도 이어 세 번째로 넓다. 기업도시 개발, 도로 등 SOC 확충, 해외 및 수도권기업의 투자유치 등으로 대지, 공장용지, 잡종지, 도로 등 지목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 임야, 농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이번에 확정된 면적은 2월말 국토교통부 검증 과정을 거쳐 지적통계연보

에 수록될 예정이다. 토지정책 수립 등 기초통계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토지 관련 각종 통계는 전라남도 누리집과 토지관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전남 토지 면적 증가는 169억 원 규모의 자산 가치 증대 효과가 있다”며 “정부교부금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oul.co.kr



이용섭 광주시장, 기부금품 전달식 참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3일 오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주)어패럴컴퍼니 트렌디어패럴 기부금품 전달식에 참석해 한상원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왼쪽)과 김민주 트렌디어패럴 대표(오른쪽)로부터 기부금품을 전달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청

### 평택 송탄보건소 “모바일로 건강관리해요”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바쁜 생활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청장년(20세~60세)층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모바일헬스케어사업 대상자 130명을 2020년 2월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1개 이상을 가진 건강 위험 군으로 질환자나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또한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활동량계와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담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이 6개월 동안 의료, 영양, 신체활동에 관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을 통해 건강위험요인 및 행태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 방문은 사업 기간 내 검사를 위해 3회만 하면 된다.

/경기=이보현 기자 bhlee7777@

## 인천시, 도시관리 대책 추진... 지역활성화 도모

### 이전 부지, 계획적 개발 방안 제시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 필요 작년 8월 용역 착수, 내년 완료 목표

인천시는 중구 항동 주변지역의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항만배후지역,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적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도시관리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중구 항동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 항만시설로 진출입하는 화물차량으로 인해 환경, 교통문제 등에 노출되어 왔다.

또한, 내항 재개발,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 석탄부두·모래부두 이전 등 항만기능 재정립이 대두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관리와 주민 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이에, 시는 2019년 8월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2021년 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 및 기능 증진, 경관·미관 개선으로 양호한 환경 확보 등 지역을 체계적·계획

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다.

‘중구 항동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제1국제여객터미널 이전부지에 문화·관광·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개항장~월미도~연안부두로 이어지는 월미관광특구와 연계한 지역 발전 방안, 항만 진출입 대형화물차량의 주거지 통과 최소화로 열악한 도시 환경 개선, 지역여건에 맞는 건축물 용도 지정 등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다.

공상기 도시균형계획과장은 “지난해 11월 연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시·구의원 등이 참석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 설명과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였다”며 “앞으로도 계획수립 과정에서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보성군, 설맞이 전 품목 10% 특별 할인

최대 15% 이상 혜택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 물’ 전 품목 10% 할인 행사를 연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최대 15%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회원은 5000원 적립금이 지급되고, 모든 회원에게는 5% 구매 적립금이 지급된다.

보성 물에서는 녹차수도 보성의 위상을 자랑하는 녹차와 차 연관 제품을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보성물 홍보 포스터

또한, 11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보성 키위, 벌교꼬막 등 농어가의 정성을 듬뿍 담은 풍성한 선물세트가 구비되어 있다.

/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 전남 서부권 대표 牛시장 함평우시장, 화요일 개장

‘118년 전통’의 전남 서부권 대표 우(牛)시장인 함평 우시장이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에 개장한다.

13일 함평군과 함평축협 등에 따르면 기존에 전통시장 개장일(매월 2·7일)에 맞춰 열렸던 함평 우시장이 이달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요일별 개장이 전국적인 추세로 자리잡은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함평 우시장이 최초다.

기존에 별도 운영했던 비육·번식우와 송아지 전자 경매일도 매주 화요일로 통합한다. /전남=나성주 기자 nsj3983@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6 해질 / 17:36

1월 14일 (화) 음력 : 12월 20일

수도권 날씨 -5 ~ 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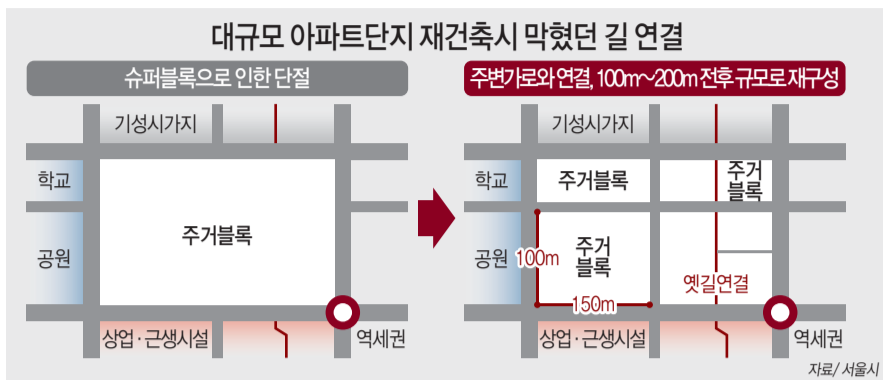
지역별 날씨: 연천 -9/2, 동두천 -8/3, 가평 -9/3, 파주 -10/2, 서울 -5/2, 양평 -7/3, 인천 -4/1, 수원 -3/3, 용인 -3/3, 평택 -5/3, 백령도 -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대규모 단지 내 통로... 슈퍼블록 없애 열린공간으로

(아파트)

서울시 아파트 단지조성기준 마련  
한편 200m 이상 블록 분절해 재구성  
저층 주거지 재개발시 가로 기능 유지



서울시가 '도시의 섬' 아파트를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막힌 길을 다시 연결하고 이 길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폐쇄된 아파트 단지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시는 "아파트는 특정계층의 주택이라는 인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며 "단일화된 환경으로 다양성과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길의 연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수요 맞춤형 주거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골자로 한 '아파트 조성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아파트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시는 아파트로 단절된 길을 잇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한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슈퍼블록은 100~200m로 분절해 재구성해야 한다.

다. 블록 사이의 길을 만들어 나누고 인근 가로와의 연결성, 지역 자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단지를 계획해야 한다.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존 주요 가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옛 길과 물길 등 전통적인 도시조직은 보전·복원한다.

새롭게 생긴 아파트단지 내 길을 중심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

다. 다시 연결되거나 보전된 가로는 지역 사회 소통을 위한 생활공용 가로로 바뀐다. 이곳에는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이 생긴다.

시는 미래 수요와 지역의 특성·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은 실버케어센터, 재택근무시설, 다문화 소통센터, 일자리지원 시설 등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노인정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헬스케어센터, 공유비즈니스센터, 아이돌봄센터로 변신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1~2인 가구, 노인, 청년 등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면 특화 및 주동 배치를 검토한다.

예컨대 노인 특화동에 공동건강관리 공간을 설치하고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소규모가구 특화동에는 공동주방을 만든다.

아파트단지 내·외부 가로는 보행자 시각에서 디자인적 일체감을 주도하도록 관리한다. 시는 도시의 경관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 차원의 입체적 경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지구 차원의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주변 도시와 단절된 기존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자동차세 미리 내고 10% 혜택 받으세요”

(세액공제)

서울시 '자동차세 선납신고·납부'

서울시는 일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해당 기간 내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내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희망자는 이달 16~31일 ETAX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구

청에 방문해 1년치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이번 달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 박원순 시장,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 “선조의 헌신 기억해야... 독립 흔적 보존 지원”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보존  
美 시민권자 1호 추정 이화손 참배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대한제국의 흔적을 찾아 한미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조들이 보인 헌신의 노력을 우리가 기억해 좀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한미간의 우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독립을 향한 당시의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하 공사관)은 1889년 2월 대한제국이 서양 국가에 처음으로 설치한 외교 공관이다. 16년간 미국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던 구한말 자주외교의 첫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워싱턴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



미국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 시간) 구한말 자주외교의 상징적 공간인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했다. /서울시

아있는 유일한 공사관 건물로서 의미를 더한다.

공사관 건물은 고종이 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공사가 5달러에 사들이고는 곧장 10달러에 미국인에게 매각했다.

1940~1950년대 제대군인 재활병원, 1960년대 화물운수노조 사무실로 쓰이다가 민간인에게 매각됐다. 2012년 한국 정부가 350만달러에 다시 사들였고 복원을 거쳐 2018년 5월 전시관 형태로 문을 열었다.

박 시장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엔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한미 외교관계의 우호적인 역사적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캐슬린 스티븐슨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이어 박 시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대한제국 외교관 자녀이자 미국 시민권자 1호로 추정되는 '이화손'의 묘터를 방문해 참배했다.

/김현정 기자

## ‘소형 태양광’ 지원 10MW→ 20MW 확대

(자가용)

서울시 생산발전량 따라 인센티브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

비용량)을 10MW에서 20MW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kW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내부순환로 단속... 제한속도 70km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흥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7.9km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km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 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시는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

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간 단속을 위해 시는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기술창업 지원금 대폭 상향... 3800만원 책정

지난 11년 동안 도내 중소기업의 든든한 창업 도우미 역할을 한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사업화 지원금을 늘려 창업자들을 돕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우수한 아이디어 또는 아이템을 보유한 도내 예비·초기 창업자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경기도의 대표 창업 지원사업이다.

지난 200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9

년까지 2100여명의 창업자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사업 참여 경쟁률이 5:1이 넘는 정도로 예비 창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전체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 5년 생존율은 29.2%인 반면,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1년 생존율이 76.6%, 5년 생존율은 54.7%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 출원, 마케팅 활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을 지난해 1,500~3,000만 원보다 대폭 상향된 2,600~3,800만 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과거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들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졸업기업 후속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금융] NH농협금융 “위기가 쓰고 기회라 읽는다 포폴 재편 시너지 극대화” 05



Life

[산업] KT, 설 전 인사 유력 ‘구현모식’ 조직개편은 AI·안정 06



# 39년째 헌혈캠페인... 의약품 지원 116억... 11년째 소외계층 나눔 인류 건강 책임지는 최장수 사회공헌 기업 ‘한미’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최장수 기업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점차 키우며 의약품 지원사업은 물론, 의료봉사 활동, 다문화가정 아동 후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경영이념인 ‘인간 존중, 가치창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다.

#### ◆최장기 공익 캠페인 ‘사랑의 헌혈’

한미약품이 진행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도 올해 까지 39년째 꾸준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미약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1980년 11월 서울 지하철 시청역의 ‘헌혈의 집’ 개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81년 시작됐다. 한미약품의 대표 기업문화로 자리잡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생명 나눔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39년간 한미약품그룹의 사랑의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누적 임직원수는 8218명에 달한다. 혈액량으로 환산하면 총 262만 9760cc 규모다.

한미약품의 헌혈 캠페인은 국내 제약회사 사가 벌인 최장기 공익 캠페인으로, 매년 한미약품 그룹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해 588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발급된 헌혈증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헌혈 캠페인을 기존 2회에서 연간 4회로 확대 운영했다. 경기도 화성시(팔탄)와 평택시에 위치한 플랜트에서는 계절적 헌혈 비수기인 1월과 8월에,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의 연구센터, 의원사업부는 4월과 10, 11월에 각각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미약품 CSR팀 임종호 전무는 “해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 캠페인 확대를 결정했다”며 “인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으로서, 업계 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



한미약품은 올해까지 39년째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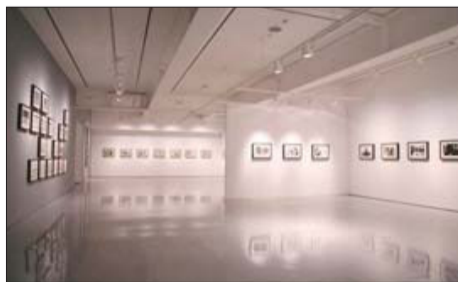
/한미약품

### 39년간 사랑의헌혈 캠페인 참여 임직원수 8218명 달해 헌혈증 혈액암 환자에 전달

### 매년 자선바자회로 기금 마련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 도와 국내외 어린이 위한 의약품 지원



제4회 빛의소리나눔콘서트 현장.



한미사진미술관 내부 모습.

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전국 헌혈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약 21만명 감소했으며,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헌혈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한다.

#### ◆임직원, 소외계층 돕기 ‘앞장’

한미약품그룹 임원 가족들도 11년째 따뜻한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사 임원 가족모임인 한미부인회는 매년 자선 바자회를 열고 연말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 마련에 나선다.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다문화가정 보육센터, 노숙자 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단체 및 기관에 전액 기부되고 있다. 또 한미부인회는 2017년부터 세계시민포럼을 통해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이주아동의 성장과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2011년 한미약품이 김철민 당시 안산시장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아동 지원사업 기관이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이 기금으로 체류난민 생계비 지원 및 영·유아 인지언어발달지원 사업을 비롯해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를 운영하는 통합멘토링 사업 ‘Dreaming-Star’를 진행하고 있다.

#### ◆의약품 지원...누적 금액 116억여원

한미약품은 국내외를 망라한 의약품 지원사업으로 인류에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약품은 1997년부터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함께 북반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도 의약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북한 수해지역에 영양수액제, 해열진통제 등 13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개성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

으며, 2015년 12월에는 비타민, 종합감기약 포함 10억여원의 의약품을 평양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에 전달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매년 꾸준한 의약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누적 금액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16억여원에 달한다.

문화 지원도 활발하다. 한미약품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 사진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국내 최초 사진전문 미술관이다. 2002년 비영리갤러리로 시작해 2003년 사진전문 미술관으로 정식 인가, 연평균 6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 대표 사진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사진미술관은 전시 외에도 작가 지원 및 학술, 출판, 국제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진을 소장·연구함으로써 한국사진사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미약품이 후원하고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가 주최하는 자선 음악회 ‘빛의소리나눔콘서트’는 콘서트를 통해 ‘빛의소리희망기금’을 조성, 장애 아동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단체를 3곳으로 늘렸다.

MPO와 한미약품은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자선기금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 합주단인 ‘어울림단’, 전북 익산의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 청록원 ‘블루엔젤스 콰이어’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빛의소리나눔 콘서트는 오는 2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약품 우종수대표는 “한미약품은 기업 이념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 정신에 입각해 양질의 의약품 개발은 물론, 건강한 사회,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인류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자선바자회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